



주체 105 (2016)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제325호 월간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절절하게 (♩=72) 작사 조광철
작곡 장충심

mp G Bm/F[#] Em Am D₇

1. 그 품이 없인 하루 한시도 못사는 우리 맘 속에
날이 갈 수록 더욱 불타는 그리움 끝없습니다 원
수 님 곁에는 - 정으로 사는 인민이 있 습니 다 원
수 님 한분만 - 우려 러 보며 끝없이 따릅니다

G Bm/F[#] Em C D D₇ G Cmf D

G Bm/F[#] Em Am A₇ D D₇

2. 인민을 위해 하늘의 별도 다 주는 어버이품에 운명의 피줄 더 굳게 잊고 꿈에도 안겨듭니다 원수님 곁에는 변심모르는 인민이 있습니다 원수님 그 뜻만 가슴에 안고 한마음 받듭니다

3. 그이와 함께 사선천리도 웃으며 헤쳐넘으리 그이와 함께 영광만리를 끝까지 우리는 가리 원수님 곁에는 하나로 뭉친 인민이 있습니다 원수님 령도만 따르는 한길 영원히 가렵니다

원수님 계시여 조국도 있고 인민도 있습니다 원수님 한분만 믿고 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차례

-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혜택 아래 -	
진정한 인민의 보건제도를 마련해주시여	3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는 말을 두고	5
치료받을 병상을 모르는 일민	6
수기	
나에게 새 생명을 안겨준것은...	8
효능높은 고려약생산에 힘을 넣는다	9
복방은 원아들에 대한 이야기	10
하나의 물방울에 담겨진것은...	14
100살장수자의 하루일과	15
수필	
녀사의 고향에 대한 생각	1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카툰화의	18
사회주의위업완성의 만년초석	21
수기	
공화국기발과 함께 이어지는 나의 삶	22
방문기	
나도나도 빼우는 곳 (2)	23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	
금메달을 불러오게 될 『4성선』제품들	26
동막산의 메아리	28
고향소식	
사람도 산천도 달라지는 벽촌에서	32
편지	
영남의 당부를 잊지 않고 있음을니다	34
조국의 품에 안겨	
삶의 기준	35





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 통하여 본 조국의 모습 ······	36
대외 경제관계의 확대발전에 대하여 (3) ······	38
나를 기쁘게 한것은 ······	39

좌담회

그 누구도 우리 조국을 건드릴수 없다 ······	40
------------------------------------	----

인상기

과학기술강국,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	41
미국에 보내는 강력한 선언 ······	42
『정의총』 장관소리에 이끌려 ······	43

민족의 향기

가을철의 보양음식 추어탕 ······	44
추석날 풍습 ······	46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0) ······	47

사화

흙산 ······	48
민족의 자랑-금속활자 새로 발굴 ······	49

력사인물

고려시기 무관이며 문인이었던 김희제 ······	50
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조국통일3대현장 ······	50
빨록불가림운동과 반제자주의 가치 ······	52
최악에 찬 역사를 거슬러 ······	53
대조선적대시정책, 평화위협의 요인 ······	54
고막한 심보 ······	56

상식

조선의 3대고려의학고전 ······	20
민속무용 『돈돌라리』 ······	38
불화살 ······	44
코감기를 미리 막자면 ······	44
조선속담 (경명) ······	42

유모아

력사는 되풀이 ······	54
-----------------------	----



류경치과병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3월

-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혁파아래 -

진정한 인민의 보건제도를 마련해 주시여

맑고 푸른 하늘가에 《조국찬가》의 노래가 울려퍼진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폐여준
정든 고향 집뜨락 조국이여라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조국
에 대한 사랑이 넘쳐흐르는 이
노래는 새겨볼수록 조국에 대한
긍지를 깊이 안겨준다.

인민들이 그토록 긍지에 넘
쳐 사랑하는 조국은 바로 주체

37(1948)년 9월 9일 자기의 탄
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수
십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군사적
통치에서 해방되어 기쁨에 겨워

울고웃으며 환희에 젖어있던 인
민들이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
부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

람을 안고 《애국가》를 부르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그때로부터 장장 60여년세월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사
랑하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하늘
의 별도 따오는 고마운 조국이
있어 인민들은 무병장수를 노

래하고 있으며 100살장수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평양시 중구역 서문동에서
살고있는 100살장수자가 은정
어린 100돐생일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것이 엊그제같은
데 얼마후에는 중구역 역전동
에서, 그다음에는 경상동에서
장수자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

-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혜택아래 -

졌다.

늘어나는 100살장수자, 이것은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을 의무로 내세우고 있는 조국의 가장 옳바른 인민적인 보건시책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조국에서의 인민을 위한 보건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에 새형의 보건제도를 세워주시고 인민적인 보건시책들을 실시하시여 인민보건사업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신 그때부터 마련되었다.

그 전통이 있어 해방후 주체36(1947)년부터 사회보험법에 의한 노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고 주체37(1948)년 3월 19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 의사당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는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으며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2(1953)년 1월 1일부터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 하여 전쟁의 불길이 한창인 때에 인민들은 누구나 치료비, 약값을 물렀고 폭격에 상속에 힘있게 벌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모든 도민 병원들과 도산원들, 시, 군 인민병원들에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주체102(2013)년에는 우리식의 먼거리수술지원체계가 연구개발되고 전국적으로 그 도입이 끝났으며 주체103(2014)년에는 옥류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도소아병원들을 포괄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수립되었다.

더우기 주체69(1980)년 4월

공화국인민보건법이 채택됨으로써 인민들은 보건제도와 보건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민보건법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었다.

장군님께서는 정성은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이라고 하시며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여러 로작을 발표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다.

온 나라에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도입할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으로부터 도민병원들사이에 수립된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게 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앞으로 시, 군인민병원들에 확대해나갈데 대한 교시를 여러차례에 걸쳐 주시였으며 이 사업이 전국가적인 관심 속에 힘있게 벌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모든 도민 병원들과 도산원들, 시, 군 인민병원들에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주체102(2013)년에는 우리식의 먼거리수술지원체계가 연구개발되고 전국적으로 그 도입이 끝났으며 주체103(2014)년에는 옥류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도소아병원들을 포괄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수립되었다.

하여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되였던 평안남도의 한 소녀가 다시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되였고 몇시간후이면 생명이 꺼진다고 하던 갓난아이가 고고성을 터치였으며 심한 뇌타박으로 20여일간이나 의식을 잃었던 환자가 의식을 차리는 등 눈물없이 전할수 없는 로동 당시대의 새 전설이 수많이 생겨났다.

조국에 수립된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직접 목격한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전국적범위에서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수립, 이것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에서만이 실현할수 있는 경이적인 성과이며 조선에 세워진 먼거리의료봉사체계야말로 세계보건의 사랑이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최근년간에 새로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과 완공단계에 이른 류경안파종합병원과 보건산소공장이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려준다.

지난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지구에 새로 일떠서고있는 류경안파종합병원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안파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것이며 꼭 하고싶었던 일이였다고,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즐겁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몸소 형성안도 지도해주시며 힘있는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고 자재보장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시고도 건설현장에 나오시

여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는 원수님이시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동행한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경안파종합병원건설을 얼마나 중시하고계시는가에 대하여 미처 모르고있었다.

공사추진정형을 알아보시면 그이께서는 강재가 미처 도착하지 못하여 공사속도가 체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자 즉시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강재를 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걸리랴만 병원건설이 순간이나마 지연되는것이 념려되시여 긴급조치를 취해주시며 그이께서는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병원을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서의 특성이 살아나게 내외부시공을 최상의 수준에서 함으로써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자고.

그렇다.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으며 무병장수의 기쁨을 노래하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은 그대로 주체적보건사업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파 의료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비로소 우리가 너무도 범상하게 입에 올리던 그 말이 가지는 의미와 무게에 대하여 더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하기에 진정한 인민보건제도의 혜택아래 무상으로 치료받을 때 대한 공민의 법적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무병장수하려는 세기적념원이 확고히 실현된 조국을 인민들은 소리높이 자랑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본사기자 한신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는 말을 두고



나는 성의껏 치료를 하였다. 그러자 이틀이 지나서부터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면서 얼굴과 팔다리의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퇴원시키겠다는 것이였다.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아무리 설복하여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조국인민들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들의 모습, 결국 그것은 돈때문이였다.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문을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는 나의 눈앞에 그 나라에 와서 보낸 날이 어려왔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병원문을 나설 때까지 들리는 곳마다에서 돈을 내야 하였다. 문진, 진찰, 실험검사, 치료 그것도 병과 치료에 따라 가격이 다 달랐다. 또 입원하여서도 치료비, 입원비 등 모든것이 돈으로 계산되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수도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죽어야만 하는것이 자본주의나라의 실태였다.

어느날 나는 친구의 어머니를 완쾌시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면이 있는 어느 한 약국 책임자에게 이야기하였다.

나의 말을 진지하게 듣던 그는 불쑥 이렇게 물었다.

《당신네 나라에서는 치료도 무상이고 교육도 무료이며 집도 국가에서 지어서 돈 한푼 받지 않고 인민들에게 거저 준다는데 그 말이 정말인가.》

《정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선 병이 나기 전에 병을 예방하는 것이 의료사업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오면 검사로부터 시작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전기간 모든 것이 무상이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그 재능에 따라 학생들의 전망도 결정해준다. 집도 나라에서 품들여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준다.

그 은덕속에 나도 딸애를 의학대학에 보냈고 나라에서 무상으로 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돈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나도 꼭 가보겠다.》고 말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 이 한마디의 말에 사회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의 모습은 나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 일기장에 《돈으로 본 나라》라는 제목으로 병이 나기 전에 의사가 직장과 가정들을 찾아가 예방대책을 세워주고 병이 나면 의사가 환자와 함께 밤을 새우며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고 서로 위해주며 한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와 돈이 없으면 죽어야만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진면모를 대비적으로 그려 놓았다.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제일로 사랑한다.

김만유병원 의사 리조범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는 인민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가장 우월한 보건정책의 혜택아래 누구나 치료받을 걱정없이 살고 있다. 한 것은 인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며 병이 나도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주기 때문이다.

공화국에서의 이 우월한 보건시책은 어제와 오늘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녕 오래고도 깊은 력사를 가지고 있다.

그 력사적뿌리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신 유격구의 병원들에서 무상치료를 실시하도록 하신데 있다.

그로부터 해방후 조국에서는 주체36(1947)년부터 사회보험법에 의한 노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2(1953)년 1월 1일부터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 당시 전쟁의 불길속에서 전

전국적인 면거리의료봉사체계가 서있다.



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였지만 공화국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세상에 없는 시책을 실시하였다.

공화국에서는 전후 전쟁으로 하여 파괴된 보건기관들을 빨리 복구건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그후 나라의 경제가 장성하는데 따라 보건사업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하여 공화국에서는 빠른 기간에 무상치료제의 보다 높은 단계로 되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리였다.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의료봉사조선과 그 질적 수준을 보다 높여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이를 위해 의료시설을 더 늘여 보건사업을 인민들에게 최대한 접근시키였으며 현대적인 의학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

을 높이고 의사담당구역제와 리진료소를 병원화하는 등 보건사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중앙과 도, 시, 군, 구역은 물론 공장과 농촌에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떠서고 동, 학교와 유치원 등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진료소가 세워졌을뿐 아니라 의사담당구역제가 실현되어 인민들의 건강보호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현한 공화국에서는 그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농촌에 있던 리진료소들을 병원화한 것이다.

공화국에서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리진료소들을 전문과를 갖춘 병원으로 꾸려주어 농촌주민들이 도시주민들과 꼭같이 의료봉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시, 군마다에 제약공장을 일떠세워 인민들의 병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약품과 필수약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각지 의료기구공장에서 병원들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

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갖춘 어린이의료봉사망, 여성의료봉사망, 고려의료봉사망, 치과의료봉사망 등 전문과적의료봉사망을 완비하여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더 큰 은을 내게 하였다.

인민을 위한 의료봉사조선이 원만히 갖추어지고 그 질적수준이 부단히 강화되는 속에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한 예방치료사업이 보다 본격화되었다.

하여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가정들을 찾아 예방치료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보건일군들 속에서 환자들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뼈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이 련이어 펼쳐지고 보건일군들의 의술과 정성의 결합으로 기존의 학상식으로 써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던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소생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학교들에도 의료봉사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할수 없고 오직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는 공화국에서만 꽂혀 날수 있는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조국인민들은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제도라는 것을 폐부로 절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훌륭한 제도를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인사, 충정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현장치료를 나가는 의료일군들



위생선전활동

-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혜택아래 -

수기

나에게 새 생명을 인겨준것은...



몇년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국성이가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다. 아들을 초소로 떠나보내면서 남편은 말하였다.

《국성아, 너도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겠지. 조국보위의 길이 너의 어머니생명뿐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생명, 조국의 운명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잊지 말아라.》

남편과 아들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듣는 나의 눈굽도 축축히 젖어들었다.

아들과 내가 살아온 길.

돌이켜볼수록 가슴뜨겁다. 내가 아들을 낳은것은 주체86(1997)년 1월 24일이였다. 아들을 낳았다고 온 집안이 그리도 기뻐하며 들끓었지만 아들을 낳은지 3일만에 내가 폐동맥전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렇게도 바라던 아들을 낳았건만 자칫 잘못하면 나는 물론 아들도 생명을 건지기 힘들었다. 하지만 보건일꾼들은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면 멀쳐나 끌끌내 우리 모자를 살려내였다.

그때로부터 내가 받아안은 나라의 혜택을 무슨 말로 다 표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 인민들은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다 모르듯이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고마움에 대해서 다는 모른다. 나도 물론 그랬다.

다른 나라에서는 돈이 너무 도 많이 들어 특권층만 받는다는 심장수술을 그것도 구역체신소로동자의 안해인 내가 돈 한푼 내지 않고 두차례나 받으면서 나는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얼마나 고마운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폐동맥전색증을 앓은 후 주체90(2001)년에 승모판협착증으로 승모판교련절개술이라는 심장수술을 받은 나는 주체100(2011)년 9월 김만유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였다.

나를 위해 수차에 걸치는 의사협의회가 진행되었고 10월 14일 승모판 및 대동맥판치환술, 삼천판성형술이라는 대수술을 받게 되였다.

아침에 시작한 수술은 저녁이 다되어서야 끝났다. 일곱시간나마 수술을 진행하다나니 의사선생님들이 점심식사를 못한것은 물론이고 수술복마저 온통 물주머니가 되였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나를 소생시키기 위해 또 며칠밤을 꼬박새웠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밤중이였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과장 조광호, 담당의사 문영남, 최명경선생님들과 담당간호원들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친부모의 모습그대로였다.

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다 갚겠는가며 눈물 속에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데 담당의사 문영남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본분을 다했을뿐입니다. 우리 세상이야 인민의 세상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가슴에는 뜨거운것이 꽉 차올라 눈물이 베개잇을 적시고 또 적시였다.

수술후 나에 대한 의사선생님들의 정성은 친혈육보다 더 지극하였다.

회복치료에 좋다는 갖가지 보약재들을 가져다주는가 하면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먼저 나를 찾았고 명절날, 휴식날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50여일간의 뜨거운 정성으로 나의 병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다.

퇴원하는 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를 낳은 어미도 줄수 없는 생을 나라에서 주었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단 말이냐. 숨이 지는 날까지 이 좋은 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

그날부터 어머니는 인민군대원호사업을 비롯한 사회적인 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였으며 온 가족이 따라나섰다.

지금도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곤 한다.

《사회주의조국은 우리의 생명이다. 조국보위는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조국의 크나큰 은덕에 뼈를 깎고 살을 베여서라도 보답해야 한다.》

대동강구역 청류1동
9인민반 김경애

효능높은 고려약생산에 힘을 넣는다

-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 처장 유영진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최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고려약생산이 높아가고 있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유영진: 아닌게 아니라 지금 전국의 모든 고려약공장들에서 레년에 보기 드문 생산성파가 확대되고 있는데 보건성 고려약생산 관리국 일군인 저로서

도 하고싶은 말이 많습니다.

잘 알고있겠지만 고려약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습성과 체질적특성에 맞을뿐아니라 약효가 높고 림상실천에서 매우 큰 생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약은 병든 유기체를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치료할수 있게 하므로 치료효과가 좋고 신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칠수 있으며 독성과 부작용을 적게 나타냅니다. 고려약은 그 자원이 풍부하고 쓰는 방법이 간편하여 자재와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손쉽게 채취가공하여 쓸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은 고려약만 가지고도 병을 쉽게 고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1 500여종이나 되는 고려약재를 써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인민들은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서 고려약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오늘 우리나라 각 도, 시, 구역, 군들마다에 있는 고려약공장은 전국적으로 200여개나 됩니다. 매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고려약들은 대부분 자기 지역의 구역, 군병원과 진료소들에 공급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고려약수요를 충족시키자면 약품생산량을 늘이는것과 동시에 고려약생산의 엑스화, 과학화, 무균화, 무진화를 다그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관리국에서는 지난해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어느 한 제약종합공장처럼 모든 고려약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목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리국안의 모든 성원들은 아래단위에 내려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각 도마다 본보기단위들을 정하고 앞선단위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고있습니다.

기자: 지난 기간 우리도 적지 않은 고려약공장들을 현지에서 취재하면서 보았는데 강계고려약공장과 강계고려약가공공장, 회령과 평천, 희천의 고려약공장들에서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현대적으로 꾸려놓고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약품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금은 과학기술전당파 망으로 연결되어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과학기술보급실을 홍릉히 꾸려놓고 기술학습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종업원들 누구나 새 제품개발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습니다.

유영진: 옳은 말입니다. 평천고려약공장만 보더라도 이 공장에서는 지난 70일전투기간에 일부 낡은 설비들을 대담하게 들어내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창안제작한 국산화된 설비들로 의약품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이자 곧 생산실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지배인 문순옥은 기사 윤진옥, 약제사 최성옥, 생산준비원 최영철을 비롯한 공장의 기술일군들과 힘을 합쳐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새제품개발, 도입사업에 헌신분투하였습니다. 실지이 공장에서는 몇년어간에 록사향, 단나무열매주사약, 두충금강약돌혈압안정단물을 비롯하여 효능높은 고려약을 70여가지나 생산하고있습니다.

기자: 전국의 모든 고려약생산자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는다면 가까운 앞날에 상비약과 대중약품뿐아니라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경쟁력있는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또 고려약에 대한 전인민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혁신적으로 사업함으로써 주체109(2020)년까지 모든 고려약공장들에서 GMP(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인증을 받고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고려약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혜택아래 -



북방은 원아들에 대한 이야기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전국의 도들마다에 솟아나고 있다. 그중에는 몇달전에 준공식을 한 평성육아원, 애육원도 있다.

우리와 만난 평성애육원 원장 김려일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각 도들에 육아원, 애육원을 세우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곳에 들게 될 원아들의 건강검진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신 후 당시 평안남도육아원, 애육원에 건강이 좋지 못한 원아들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인



민군대가 많아 잘 치료해줄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그들이 건강해졌을 때에는 몸소 병원에 오시여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며 따뜻한 사랑의 말씀과 함께 그들의 앞날도 축복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선천적인 병을 가진 아이들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튼튼해진 원아들이 다시 보금자리로 오게 되었을 때 시내에서는 연도환영이 진행되고 육아원, 애육원에서는 원아들을 치료해준 군인들로부터 원아들을 받아안은 교양원, 보육원, 시민들이 아이들을 안고 걱정의 눈물을 흘리였다고 한다.

《원아들이 항상 밝게 웃으며 텔끝만큼도 부러운것없이 자라도 록 마음쓰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육아원, 애육원이여서 준공식은



-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혜택아래 -



Oh 육아신

교양적이였다.

아동자전거며 축전지 차를 비롯한 여러 놀이기구가 있는 이곳은 아이들이 제일 즐겨 찾는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 속에 건강을 회복하였다는 높은 2반의 김현령어린이와 높은 3반의 리경심어린이도 만나보았다.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몸이 좋았고 씩씩하였다. 공부도 잘하고 품행 또한 단정한 경심이는 요즘 장고를 배우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현령이는 반년정도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웬만한 곡은 연주할 정도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지능놀이실, 무용실, 종합물놀

이장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마

음껏 뛰노는 원아들의 모습도 보았다.

이어 우리는 애육원과 나란히 있는 평성육아원을 찾았다. 이곳 원아들도 하나같이 크고 실하였다. 잠방에서 푹 자고 난 2~3살난 아이들의 몸무게를 재여보니 거의나 15kg이였다. 천성적인 병으로 하여 뇌수술을 받은 김영일파 뼈발육부전이 왔던 전명국은 그 이상이였다. 언제 그런 병을 앓았던가싶었다.

아이들의 모습에 정신이 팔려있는데 한 어린이가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불임성이 좋은 처녀애의 이름은 김탄실이였다. 알고보니 그 어린이는 병원에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행복동이였다. 그는 아버지원수님께 노래를 불러드렸다고 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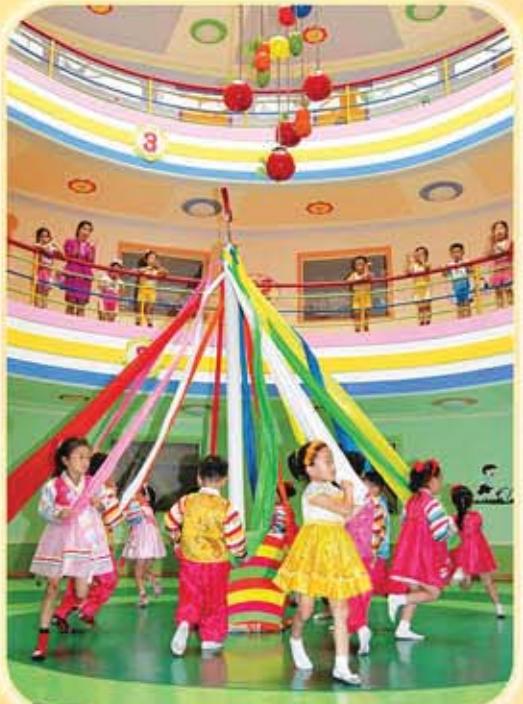
서 우리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어 방안에는 아이들이 경애하는 원수님 앞에서 부른 노래 《세상에 부림없어라》가 울려 퍼졌다.

아직은 자기들이 어떤 사랑속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며 자라나는지 알수 없는 어린이들이다.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그들도 알게 될것이다. 자기들의 친아버지가 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계시여 자기들이 세상에 부림없는 복받은 어린이들로 자라났다고.

우리는 하루 영양공급기준표에 따른 영양관리를 하며 훌륭히 꾸려진 자연관찰실과 지능놀이실을 비롯한 방들에서 그늘 한점없이 행복하게 자라는 원아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하나의 물방울에 담겨진 것은...



환자치료에 전심하는 김달영(가운데)

하나의 물방울에 우주가 비긴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한 의료일군의 모습에서 이 말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다. 그는 평성의학대학 평안남도인민병원 안과 과장 공훈의사 박사 김달영이다.

김달영의 경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과의사로 25년, 과장으로 16년 도합 40여년간 의료일군으로 사업, 이 기간 8 600여회 수술을 진행하고 10 800여명의 눈질병환자 치료, 30여건의 교재와 참고서, 론문을 집필발표, 50여건의 발명과 새 기술도입...

몇 줄밖에 안되는 그의 경력에는 나라의 의학 교육과 의학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놀라운 성과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 차있다.

그 이야기중에서 우리는 몇가지만 말하려고 한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도인민병원 안과 의사로 배치되어 처음으로 맞다른 대상은 근시환자들이였다고 한다. 그때 그를 아프게 한것은 이 병이 소학교나이 어린이들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것이였다.

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시 나라의 기둥감으로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이 이 병으로 하여 마음껏 나래를 떠지 못하게 되고 장래발전에 저애를 받게 될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조국의 전

도와 관련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김달영은 일명 가짜근시(선천적인것이 아니라 교육이 심화됨에 따라 생기는 병)를 조기진단,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는 환자치료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했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도안의 소학교학생들을 비롯한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검진하여 근시조기대상과 병이 발생할수 있는 대상, 치료후 재발대상을 찾아내어 예방치료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그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근시발생전단계의 예방치료와 초기기의 진단치료, 근시발생시기에 따르는 치료방법 등이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

이 병을 고치고 시력을 되찾게 되였다.

《공기속에서 살면서 공기의 존재를 잊어버리듯 이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의 보건제도의 혜택아래 그 고마움을 다 모르고있던 저도 달영선생님의 애를 무척 태웠답니다.》

당시 옥천중학교 학생이였던 김정화는 이렇게 말하며 그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그때 근시조기대상이였던 정화는 달영선생의 치료를 몇번 받고 선생님이 찾아오면 달아나고 하여 결국 치료를 3년간이나 끌며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그렇게도 끈질기게 또 완강하게 자기

완쾌되어가는 환자들과 기쁨을 나눈다.



를 찾아다니며 치료해준 달영선생님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당시의 엄하면서도 인정미가 넘치는 달영선생님의 모습은 꼭 친아버지의 모습이였다고 말하였다.

언제인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함께 대동맹학교 학생들을 검진하던 달영은 한 처녀의 눈을 보며 생각이 깊어지게 되였다. 그는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살고 있는 18살의 처녀 강금녀였다. 어쩌면 그가 앞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였다. 물론 달영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눈질병을 치료해본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처녀의 병을 고칠 결심을 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었다. 처녀를 위해 수십차례의 의사협의회와 문헌탐구, 4차에 걸치는 눈수술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달영은 처녀의 시신경과 망막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수술후 합병증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하면서 치료를 계속하였다.

때로는 파로로 쓰러진적도 있었지만 그는 뜨거운 정성으로 끝내는 처녀에게 광명을 찾아주었다.

그때 광명을 찾은 처녀는 처음으로 텔레비죤화면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봐온고 격정에 넘쳐 《경애하는 원수님, 뵙고싶었습니다. 한생 소경으로 살번 했던 제가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품과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 19년만에 광명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 안파병동에서는 이런 감동적인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평안남도 순천시의 강옥희로인과 원정옥은 우리에게 달영선생의 치료를 받으며 조국이 키운 참된 보건일군의 모습을 보았다고, 광명을 되찾은 날 인민을 위한 이 좋은 보건제도를 세워주시고 빛내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격정에 넘쳐 불렀다고 말하였다. 김달영선생에게서 치료를 받고 눈병을 털어버린 도의 일군인 리근원은 도정권기관 일군으로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래를 더욱 활짝 꽂피워갈 결심을 다지였다.

취재를 마친 우리에게 김달영은 말하였다.

《우리 보건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이 커지고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흠토의 마음도 더 굳건해진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해나가겠다.》

그의 말은 인간에 대한 정성을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으로,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보건일군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기철

100살장수자의 하루일과

100살장수자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가.

이것은 100살장수자가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품는 생각이다.

그 생각에 시원한 답을 주고싶어 얼마전 우리는 지난 6월에 100돐생일을 맞은 심학실로인의 집을 찾았다.

그는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1인민반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그의 집을 찾았을 때에는 그가 맏며느리(장명실, 77살)와 함께 공원에서 산보를 마치고 방금 집으로 들어서려던 참이였다.

기자의 직감에서인지 우리는 대뜸 심학실로인을 알아볼수 있었다.

그는 한 20년은 더 짚어보이였다. 그의 맏며느리 장명실로인도 나이보다 훨씬 정성해보이였다. 이 집에서는 심학실로인과 그의 맏며느리 장명실로인 그리고 손자, 손자며느리와 그 자식들이 살고 있었다.

방안에 들어선 우리는 로인들을 대할 때마다 그려하듯 좀 큰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였다.

《찾아주어 고맙소. 보다싶이 난 이렇게 정정하니 그렇게 큰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되오.》라고 말하는 심학실로인의 어조는 낮으면서도 정확하였다.

로인은 먼저 우리에게 100돐생일날에 생일상을 받고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나라가 좋아 오래 산것밖에 없는 나에게 100돐생일상까지 보내주시지 않았겠소.》라며 몹시 감개무량해하였다.

맏손자며느리 리은영(49살)녀성이 할머니가 담당의사가 매일같이 찾아온다.



-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혜택아래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100돐생일상을 받은 후부터 기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며 로인의 하루일파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포개어 놓고 세면을 한 다음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도 주면서 정성껏 관리한다. 그리고는 아침식사준비를 하는 손자며느리의 일손을 도와 남새를 다듬어주기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식구들을 부르기도 한다.

로인의 식사량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 그는 늘 밥 한공기에 된장국, 짭짤하게 지진 물고기반찬, 남새볶음과 김치면 만족해 한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산보를 하는데 만며느리인 장명실로인이 제일 가는 길동무이다. 두 로인은 함께 손을 잡고 대동강기슭을 거닐며 옛일을 추억 하곤 한다. 체육공원에서 운동기재들을 가지고 간단한 운동도 한다. 그들은 한주일에 한번씩 가까운 곳에 있는 목욕탕에서 한증을 한다. 점심식사를 한 후에는 간단히 집안거두기를 비롯하여 소일거리들을 찾아하고 한시간정도 낮잠을 자곤 한다.

로인이 잠에서 깨어날 때쯤이면 진료소의 담당 의사 진달래선생이 매일과 같이 왕진가방을 메고 조용히 그의 집문을 두드린다. 진료소에서는 한주 일에 한번씩은 로인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검진하는데 그의 생명지표를 놓고 매달 파협의회가 열린다고 한다.

심학실로인은 아직 크게 앓아본 적이 없지만 나라에서는 그에게 보약제들을 정상적으로 안겨주고 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태여난 그는 7살나이에 남의 집 아이보개로 잔등이 마를 날이 없었으며 14살때부터 신의주팔프공장에서 소년로동으로

잔뼈가 굵어졌다. 그는 년로보장을 받을 때까지 힘들지 않게 일을 하였다고 한다.

저녁 시간은 심학실로인의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것은 이 가정의 세대주인 만손자 김정철이 집으로 오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심학실로인에게 있어서 그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손자인 동시에 마음도 몸도 모두 의지할 수 있는 억센 기둥이다. 심학실로인은 뜨개질도 잘한다.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강좌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만손자는 퇴근하면 꼭꼭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문안인사를 한 다음 그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는 텔레비죤을 시청한다.

보는 바와 같이 100살장수자의 하루일파에서는 찾아볼만 한 특별한 점이 없다. 하지만 언제나 규칙적이며 부지런하고 근면한 생활습관이 그를 100살에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맡며느리 장명실로인은 말하였다.
『저의 시어머니가 무병장수할 수 있은 것은 이렇게 좋은 세월이 가져다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심학실로인은 뜨개질도 잘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100돐생일상을 받아온 심학실로인



수필

녀사의 고향에 대한 생각

얼마전 함경북도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던 나는 회령을 찾게 되었다.

회령시의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있는데 문득 나의 귀전에 이런 말이 들려왔다.

『회령이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구만. 저 달라진 모습을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소.』

스치고 지나는 말 같았지만 그 말은 나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것은 해방후 고향에 한번도 와보시지 못한 너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저려왔기 때문이다.

녀사의 고향,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잊지 못한다. 그것은 아마도 고향이란 그 어떤 혜택을 입어서가 아니라 선친들의 유해와 넋이 잠들어 있고 온갖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멀리 타향에서 눈을 감을 때면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말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녀사에게 있어서도 고향은 소중한 곳이였다.

녀사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고향을 떠나신 후 언제 한번 고향을 잊은 적이 없으시였다. 항일의 나날에도 고향을 생각하시며 적들파의 힘겨운 전투를 벌리시였고 참기 어려운 고통도 이겨내며 하시였다.

그래서 조국이 해방되면 고향에 제일 먼저 가보리라 굳게 결심다지기도 하시였다.

하지만 너사께서는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 하시던 고향에 끝내 가보지 못하시였다.

조국이 해방된 해인 주체 34(1945)년 12월 어느 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고무산세멘트공장을 향해 길을 떠나시였다.

고무산에서 회령은 눈앞인 고개길 하나사이였다. 기운차게 달리던 차가 고무산세멘트공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자 일군들은 너사께 세멘트공장을 돌아오는 길에 들리고 곧추 회령으로 가시자고 말씀드리면서 운전사에게 차를 그리로 내쳐 몰라고 하였다.

녀사께서는 그들을 만류하지며 잠시 차에서 내리시어 깊은 감회에 잠겨 회령쪽을 바라보시였다.

말로 써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간고하였던 처창즈의 나날 짚주려 쓰러진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여물어가는 보리이삭을 흔들어 보이시며 조금만 더 참으면 이삭이 여무니 기운을 내라고,

그래야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 토록 절절히 말씀하실 때 눈앞에 삼삼히 어려오던 고향땅.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강의 개울가에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

『사향가』를 배워주실 때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나라를 찾고 기어이 돌아가리라 맹세를 다지던 너사이시였다.

오래도록 회령쪽을 바라보시던 너사께서는 지금 장군님께서는 새 조국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끼니도 휴식도 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 고향부터 찾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며 회령에는 이다음 꽃들이 활짝 필 때 가보자고 하시였다.

그렇게도 그립던 고향을 지척에 두시고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로동계급부터 찾으신 너사께서는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로 동계급을 믿고 새 조국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고,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기어이 공장을 복구하자고 고무격려하시였다.

고향을 제일로 사랑하신 너사께서 고향을 지척에 두시고 길을 떠나시자니 얼마나 걸음이 무거우셨으랴.

하건만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시였기에 결연히 그 길을 택하신 것이다.

돌이켜보면 너사께서는 조국 해방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바로 그 길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고 조국으로 가는 길임을 자각 하시였기에 남성들과 꼭같이 무거운 장구류를 이고지고 강행군도 하시였고 처창즈유격구방위전투, 무송현성전투, 대사하치기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백발백중의 명사격술로 빨찌산녀장군의 기상을 떨치신 것이 아니였으랴.

그렇다.

해방후 고향에 찍으신 너사의 발자취는 없어도 새 조국건설의 곳곳에 찍으신 렉사의 발자취는 오늘도 력력히 아로새겨져 있다.

하기에 나는 너사의 고향인 회령의 오산덕에 높이 모신 그이의 동상을 우러르며 너사께서 지니시였던 자신보다 먼저 수령과 조국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참된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다.

본사기자 엄향십



카륜회의

(전호에서 계속)

우리가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계급관계와 우리 혁명 앞에 제기된 과업으로부터 얻어낸 결론이였다. 조선민족이 수행해야 할 가장 절박한 혁명임무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우리 인민을 얹어매놓고 있는 봉건적 관계를 청산하며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이였다. 이런데로부터 우리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형태에 억지로 들어맞추어 혁명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면 교조를 범한다. 형태가 선차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선차이다. 설사 고전에 없는 정식화이고 남들에게 없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규정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서슴없이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 태도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더니 대표들은 이해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제일론의가 활발했던 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과 관련된 문제였다. 민족통일전선전략과 관련된 문제는 그 당시 리론실천상으로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로 공인되고 있었다. 국제당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실패한 것을 이유로 통일전선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밀몰아 개량주의자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심스럽게 대하였다.

큰 용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때에 민족통일전선정책을 로선으로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런 문제를 로선으로 제기하면 국제당의 입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때 동무들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아버지는 지주인데 그의 아들이 혁명을 지지

해나서는 경우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본가로서 독립자금도 많이 내고 독립군에 대한 물질적 방조도 많이 했는데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면장으로서 왜 놈들하고도 잘 섭쓸리고 인민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도 혁명에 포섭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본인의 사상동향을 위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때의 이런 견해가 그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 구체화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20개 조정강에서 국가정책으로 명문화되었다.

우리가 카륜에서 내놓은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은 그후 실생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동무들의 의견은 보고를 완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카륜회의가 정식으로 열린 것은 1930년 6월 30일 밤이었다.

카륜의 동무들은 진명학교 교실에다가 회의장을 준비하였다. 대표들을 위해 교실 바닥에 초물방석들을 깔고 천정에는 여러 개의 남포등을 매달아놓았다.

첫날 회의는 나의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강가나 벼들숲에서 조단위로 혹은 대표전원이 모여서 보고에서 제기된 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아주 독특한 회의 방식이였다.

카륜의 혁명 조직들이 부락의 경비를 철통같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소년 탐험대원들이 회의 전기간 특히 우리를 잘 보호해주었다.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부대가 중부만주지방에 집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탐한 일제는 우리의 활동구역인 장춘현, 회덕현, 이통현 일대에 밀정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다. 밀정들 중에는 내 사진까지 들고 다니며 행처를 탐문하는

자들도 있었다.

만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령사관의 끄나불들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밀정들을 통하여 길림을 중심으로 한 만주지역에 종래의 공산주의자들 파는 계렬도 다르고 활동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 력량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내탐한 일제는 처음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지도핵심을 잡아내기 위해 우리의 뒤를 집요하게 추적하였다. 우리가 소문을 크게 내지 않으면서도 터를 넓게 잡고 인민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놈들도 우리를 만만치 않게 본 것 같았다.

그때 카륜에서 부락의 경비 조직을 책임지고 소년 탐험대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통솔한 사람은 김원우였다. 그는 회의장에 앉았다가 도슬그머니 밖에 나가 마을을 돌아보면서 경비 상태를 알아보기 하였다. 내가 일에 몰려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명학교 교실에서 밤을 새울 때면 그도 밖에서 우리들의 신변을 지켜주느라 고 밤을 밝히였다. 어떤 날에는 학교 수직실 부엌 아궁이에서 감자를 구워 가지고 우리에게 밤참으로 내놓곤 하였다.

카륜, 고유수, 오가자 등지를 개척하는데서 김원우의 공로가 커다. 그는 길림에서 청년 학생 운동을 할 때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우리는 1928년 봄에 장춘지방의 농촌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김원우를 파견하였다. 그때 김원우는 카륜의 진명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하면서 카륜과 고유수 일대를 돌아다니며 청년들을 교양하였다. 1930년 봄부터는 차광수를 도와 조선혁명군 결성을 위한 준비 사업에도 참가하였다. 김원우가 얼굴이 끔찍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녀자옷을 입히고 현균과 부부간으로 《짜》을 무어주어 지하공작에 내보낸 적도 있었다.

김원우는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후 무기를 구입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몇 해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옥중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견결하게 잘 싸웠다.

김원우는 전후시기 안팎의 정세가 복잡할 때 지방에서 당의 로선을 옹호하여 싸우다가 종파분자들에게 잘못되었다. 그 당시 종파 분자들은 당에 충실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해하였다.

김원우의 본명은 변묵성이다.

카륜이 우리의 믿음직한 활동기지로 되고 우

리의 리념을 실현하는 혁명촌으로 전변된 것은 김원우, 김리갑, 차광수, 김혁파 같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마을을 개척하기 위해 일찍부터 퍼타는 노력을 해온 결과였다.

우리가 이 고장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 사람들은 남도패와 북도패로 갈라져 서로 등을 지고 살았다. 한때는 이 두 패가 무개하의 물을 둘러싸고 패싸움까지 하였다. 남도패가 논밭을 일구느라고 물목을 막으면 북도패가 자기네 논이 말라버린다고 하면서 삽을 들고 달려가 그 물목을 터뜨려놓곤 하였다.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북도패와 남도패로 갈라져 한데 어울려 놀지 않는 서글픈 대치상태까지 빚어졌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김혁, 김원우, 김리갑, 장소봉 등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들은 군중을 설복하여 패싸움을 청산하고 카륜에 여러 가지 대중 조직들을 내왔으며 학교를 세워 면비 교육도 실시하였다.

대표들은 7월 2일 밤 진명학교 교실에 다시 모여 회의를 계속하였다. 그날 밤 분공안을 발표하고 회의를 결속하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 사회를 담당하고 있던 차광수가 집행석에서 벌떡 일어나 격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그는 《덜렁 광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울 만큼 덜렁거리기도 하고 흥분도 잘하는 동무이지만 그런 때에도 리성만은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격정에 넘치는 웅변으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희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내두르며 웨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좌절을 당했다고 모두가 가슴치며 통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새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고고지성을 울리였다. 이 려명의 종소리와 함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궤도를 따라 매진 할 것이다.

동무들, 즉각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 뛸쳐나서자!》

우리는 그 연설을 듣고 모두 환성을 올리면서 《혁명가》를 불렀다.

우리가 카륜에서 이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길림시절에 이미 청년 학생 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 입장과 태도를 확립하고 공산주의 운동의 새길을 개척해왔기 때문이였다. 나는 투쟁의 나날에 심어지고 옥중에서 무르익힌 그 사상과 입장

을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을 뿐이다.

그것이 곧 우리 혁명의 로선으로 되고 지도사상으로 되었다.

우리가 그 론문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면 모두가 주체사상을 핵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그후 항일혁명투쟁을 비롯한 여러 단계의 혁명을 거쳐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 속에서 부단히 발전풍부화되어 오늘과 같이 사상과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하나의 철학사상으로 되었다.

해방후 우리가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은 전후시기 사회주의기초건설을 할 때였다.

1955년에 나는 당선전선동부문 일군들 앞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한 연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곧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문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주체를 세울데 대해서는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것이 창시되게 된 경위, 그 사상을 어떻게 구현해왔는가 하는데 대해서

는 외국인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인민이 그 사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혁명실천에 구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그후 김정일비서가 그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론문으로 세상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카륜회의 후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그 회의에서 내놓은 로선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적들은 우리를 《창해일속》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뒤에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인민의 바다가 있었다. 우리가 무슨 로선을 내놓기만 하면 인민들은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자기것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대오에 수천수만명의 아들딸들과 형제자매들을 보내주면서 물심량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평하 40°C를 오르내리는 만주의 혹한 속에서 15년 동안이나 발톱까지 무장한 강적파싸워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이라는 강력한 성새가 있고 인민대중이라는 무한대의 창해가 있었기 때문이였다.

(글)

상식

조선의 3대 고려의 학고전

조선은 고려의 학이 발달한 나라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3대 고려의 학고전들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의방류취》를 놓고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이름 있는 의학자 허준에 의하여 1613년에 출판된 《동의보감》은 17세기 초까지의 우리 나라 고려의 학의 모든 성과들을 집대성한 의학전서적인 책이다.

《동의보감》은 모두 2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목록,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으로 되어 있다. 책은 의료의 1차적 의의를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규칙적인 생활 조작에 있다고 보고 약물치료를 2차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매개 질병들의 예방대책까지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독특하고 우수한 점들이 있다.

《향약집성방》은 15세기 초엽까지의 우리 나라 고려의 학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민간에서 얻은 치료경험들을 종합하여 편찬한 고려의 학고전이다.

로종례, 유효통, 박윤덕 등이 1431년에 집필에 착수하여 1433년에 85권으로 편찬출판하였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약초로 구성된 처방을 기본으로 하여 주었고 개별적인 고려약에는 누구나 약초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까지 써주었다.

《의방류취》는 15세기까지의 고려의 학의 성과들을 집대성한 고려의 학백과전서적인 총서이다. 편찬자는 로종례, 김례봉이다. 책은 총론 3권과 각론 263권으로 되어 있다. 총론에는 고려진찰법, 처방법, 약먹는 법, 고려치료원칙, 의사가 지녀야 할 품성, 개별고려약들의 성미와 효능 등이 써여져 있다. 《의방류취》는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출판력사상 그 류례가 없는 방대한 고려의 학책이며 세계최초의 의학대백과전서적인 고전이다.

* * *

사회주의위업완성의 만년초석

오늘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자주적 리상과념원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

어디 가나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꽂혀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높이 행복의 웃음소리 울려 퍼지고 있는 우리 조국.

하기에 저명한 세계정치가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꿈꾸어온 리상사회인 사회주의위업은 오늘 동방의 작은 나라 선군조선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한결같이 격찬하고 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인 삶을 참답게 누려가자면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아야 하고 수령의 위대한 사상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조국은 주체적 력량을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조국이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 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며 세계자주화 위업수행의 주인공이 되자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 있게 다그쳐 정치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사상과 업적은 사회주의위업완성의 만년초석이다.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의 진면모와 그 건설의 합법칙적로정,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과정에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히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 하시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 시대와 혁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領導 아래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여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는 과정에 세기를 놀래우는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해놓았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풍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인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리자면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것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집단주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갈 수 있으며 3대 혁명을 통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와 통일 단결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경제, 문화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목표들이 달성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혁명정신인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는 것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 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억척같이 다그쳐나가면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둔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정치군사적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문화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위업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조국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공화국기발과 함께 이어지는 나의 삶

이 땅에 생을 둔 사람들치고 공화국기발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것을 떠나 우리 모두의 궁지 높고 보람찬 삶을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조국의 상징인 공화국기발.

저 하늘에 힘 있게 펼려이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느라니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제26차 올림픽 경기 대회 때의 일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진다.

여러 차례의 경기들에서 맞다듬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결승경기를 하루 앞둔 날 나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무거워졌다. 그것은 국제 경기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였고 경기를 치르어야 할 선수가 두려워서도 아니였다. 다른 아님 결승경기를 미국에서 한다는 것과 만약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어찌 라 하는 생각에서였다.

나의 이러한 심리를 들여다본 감독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다.

『김일이, 선수복에 새겨진 공화국기발의 무게를 잊지 말라.』 은연중 나의 뇌리에는 공화국기발과 함께 이어진 잊지 못할 나날들이 떠올랐다.

내가 레스링에 첫발을 들여놓은 곳은 평양시 서성구역 청소년 체육학교였다. 나라에서는 평양 남교고등중학교(당시) 학생이었던 나에게서 체육 적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껏 꽂아울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그때 지도교원(당시)은 나에게 늘 『평화 시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사람들은 체육인들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조국의 존엄과 영예가 자기들의 두어깨에 걸터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그 후 희망대로 압록강 체육단에서 나의 재능을 활짝 꽂아우는 나날에 감독이 들려준 이야 기와 국제 경기들에서 공화국기발을 휘날린 선배들의 목소리에서 나는 그 의미를 다소나마 알 수 있었다.

나는 국제 경기들에서 기어이 금메달을 쟁취할 꿈을 안고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또 흘렸다. 이렇게 공화국기발과 함께 몸도 마음도 성장해온 나는 마침내 제7차, 제8차 아시아자 유형레스팅 선수권 대회와 제25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나라에서는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린 나에게 인민체육인 청호와 함께 승용차, 살림집까지 안겨주었고 주체 82(1993)년 설맞이 모임 때에는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도록 내세워주었다.

하지만 나는 제26차 올림픽 경기 대회를 준비하던 나날에 공화국기발을 빛내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너무도 강도 높은 훈련에 지쳐 그만 주저 앉고 말았다. 더 일어날 힘이 없었다. 그런데 불현듯 감독의 조용한 목소리가 나의 귀전에 들려왔다.

『선수복에 새겨진 공화국기발과 훈련장의 벽에 걸려 있는 공화국기발은 보기 좋으라고 해서 불인것이 아니야.』

그리하여 나는 맞다듬 난관을 이겨내고 마침내 제26차 올림픽 경기 대회장에 나설 수 있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 소리와 함께 나는 결승전에 나섰다. 풍부한 국제 경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르메니아 선수는 이번 경기 대회에서 기어이 금메달을 따 보려는 야심 밀에 수단과 방법을 다하며 겸칠 기개 달라붙었다. 접수는 4 : 4 동점,

참으로 긴장한 순간이였다. 은연중 관람석에서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이 눈에 안겨 왔다.

아, 공화국기발!

불시에 무서운 힘이 온몸에 실리였다. 결국 나는 맞다듬 선수를 이기게 되었고 내가 늘 마음 속에 안고 살던 공화국기발이 『애국가』의 장중한 주악 속에 미국의 하늘가에 높이 휘날리게 되었다.

조국에서는 올림픽 2연승을 쟁취한 나에게 로령 영웅 청호를 수여해주었고 오늘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까지 내세워주었다.

영광스럽게도 지난 6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 참가하였던 나는 그이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는 그 순간 열광의 환호와 함께 마음 속으로 그이께 이런 충정의 맹세를 올리였다.

앞으로 홀륭한 체육인들을 더 많이 키워 그들이 국제 경기들마다에서 공화국기발을 더 높이 휘날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체육 기술련맹 레스링 협회
서기장 김일

너도 나도 빼우는 곳 (2)

우리가 이번에 들린 곳은 매충에 있는 전자 열람실들이였다.

전당의 중심홀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지구위성 운반로켓 《은하-3》의 모형을 바라보며 우주에 닿은 조선의 국력을 다시금 느껴보기도 하고 매충의 전자 열람실들과 홀들에 있는 《울림》, 《아리랑》 자호를 단 수천대의 컴퓨터 앞에 앉아 과학의 세계를 헤아리는 사람들,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전자 지도서들을 열람할 수 있는 아동 열람실과 학생 전자 열람실, 동화상자료들과 룰동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동화상열람실들에서 앞날의 과학자, 기술자가 될 꿈을 안고 열심히 배워 가고 있는 학령 전 어린이들과 소학교, 초, 고급 중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취재 길을 이어갔다.

우리를 안내한 책임 일군 박준철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신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일떠선 우리 과학기술 전당은 다기능화된 종합적인 전자 도서관입니다. 과학자, 연구자, 교원은 물론 학령 전 어린이로부터 백발의 늙은 로인 까지 지어는 장애자들도 일반 사람들과 꼭 같이 자기가 희망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장애자 열람실로 이끌었다.

열람실에 들어서니 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장애자들의 모습이 안겨 왔다.

맹인용 컴퓨터를 통해 자연 현상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고 있던 최일(시각 장애자)은 과학기술 전당은 정말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자료를 열람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였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점자인쇄기를 통해 마음껏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시각 장애자들이 점자인쇄물을 놓고 학습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였다.

이들 뿐 아니라 청각 장애자들

도 동화상자료와 함께 펼쳐지는 처녀의 친절한 손말 대화를 통해 원하는 자료들을 열람하고 있었다.

우리는 장애자들을 위한 컴퓨터들과 도서들을 리용하여 탐구의 나래를 활짝 꽂아우고 있는 장애자들의 모습을 뒤에 남기고 4층에 있는 전자 열람실에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열람실은 대학생, 교원, 연구자 등 수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였다.

컴퓨터로 현대적인 주택 지구를 설계하는 대학생이 있는가 하면 최근 과학기술 자료를 보며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쓰기도 하고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진중한 사색을 이어가는 연구사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평양 건축 종합대학 학생 정주성은 광활한 정보의 세계를 누비며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기쁨은 이루 형언 할 수 없다, 과학기술 전당의 위력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최신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과 지난 시기에 출판된 과학기술 도서들은 물론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 자료들이 수자화되어 있는 전당은 그야말로 인류 과학기술 문명이 집대성된 지식의 대보물로 고입니다.』

론문집 필에 열중하고 있던 김일성 종합대학 박사원생 김숙영과 김책 공업 종합대학 학생 전지

학생 전자 열람실에서



성은 과학기술전당에 구축되어있는 자료는 정말 풍부하다, 컴퓨터망에서 리용할수 있는 인터네트사전인 《대중백과》만 보아도 올림말개수에 있어서나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나 다 세계적수준이라고 흥분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에 마음이 흥그려워진 우리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로 봄비는 2층 새책열람홀에도 들려보았다.

독자들이 책을 자체로 뽑아볼수 있게 되어 있는 새책열람홀에는 수학, 물리, 자동화, 정보기술, 체육, 재료과학, 우주기술 등 36개 분야와 영어, 로어, 중어, 도이췰란드어 등 11개의 어종으로 된 1만 2 000여부의 최신과학기술도서들이 분야별로, 어종별로 진렬되어있었다.

자료도 풍부하지만 도서열람

봉사와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는 새로운 독서환경 또한 독자들의 탐구열을 한껏 불러일으키고있었다.

론문집필을 위해 전당을 찾은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생 김영호는 최신판도서들로 가득찬 서가를 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상의 귀중한 재부들을 다 안겨주시여 오늘 우리 인민은 과학기술의 봉마를 타고 세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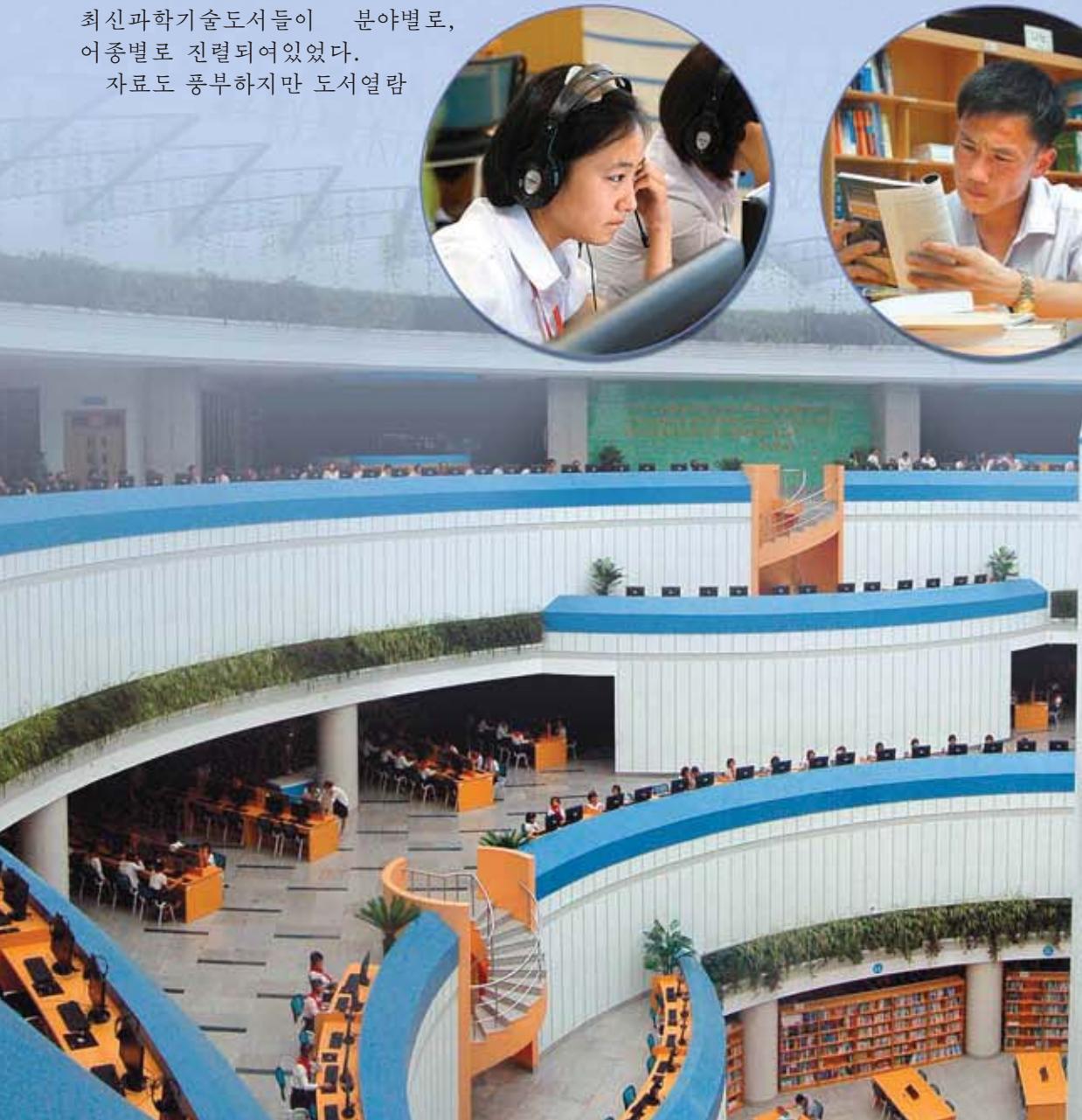
열람실의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교정과 일터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만리마시대를 열어나가는 대학생, 연구자, 과학자, 근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수 있

었다.

정말이지 과학기술전당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광명한 미래에로 가는 렐차를 타기 위해 방대한 지식의 보물고를 파고드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차고넘치였다.

우리는 배움의 전당에 굽이치는 과학 탐구의 거세찬 대하를 보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조선의 결심은 머지않은 래일에 현실로 활짝 꽂피리라는것을 확신하며 취재길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밟들고 -

금메달을 불러오게 될 《대성산》제품들

《대성산》상표를 단 축구공, 롱구공, 배구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들과 운동기재들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얼마전 우리는 평양체육기자재 공장을 찾았다.

공장은 청춘거리 체육촌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지배인 장석하는 공장이 개건된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건설되었다고 하면서 공장이 걸어온 길을 감회깊이 이야기해주었다.

주체48(1959)년 4월 창립될 당시 철봉이나 아령과 같은 단순한 운동기재생산으

로 첫걸음을 뗀 공장은 그후 여러가지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여왔다. 그러면 공장이 최근에 선수들의 활무대가 펼쳐지는 청



춘거리 체육촌의 명당자리에 새로 건설되었다.

지난 6월 1일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매 작업장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고 하면서 지배인은 우리를 제품견본실로 이끌었다.

제품견본실에는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공류와 전투장갑을 비롯한 장갑류, 운동복, 운동기재들과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체육기재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공장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이곳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을 세계적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대비해보군 한다고 한다.

우리는 지배인과 함께 작업장을 돌아보았다.

공만드는 작업의 첫 공정인 로라작업장, 내피작업장, 반제품작업장, 퀘매기축구공작업장 등 어디서나 20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로동자들의 열띤 모습

을 볼수 있다.

내피작업장에서는 내피성형 공정, 내피가류공정, 꽈지조립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내피들이 흐름선을 타고 나오고 있었다.

반제품작업장에서 각종 내피들에 양적으로 계산된 실들이 감겨지도록 기대를 조작하고 있던 기대공 김영순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였다고,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200일전투목표를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겠다고 말하였다.

여러번 실감기한 축구공내피가 가죽쪽붙임기를 거치니 몇분만에 알른알른한 가죽쪽들이 맵시있게 붙여져 축구공으로 완성되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기사장 김태섭은 공다림기를 거친 공들은 제품검사실에서 72시간 지나 중량과 텁성도 등의 검사를 받은 후 공발사기에서 수천번이나 발사되어 그 성능을 검사받게 된다고 말하였다.

재단작업장, 재봉작업장, 수지성형작업장 등에서 우리는 이 공장에 채본현상기, 리형제 등 새 기술을 도입한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도 만나볼수 있었다.

로동자들은 작업이 끝나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현장에 나온 교원, 연구사들로부터 체육발전의 현추세와 자기 전공부문에 대한 강의와 원격교육을 받기도 한다.

지배인은 공장을 떠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로 더 많은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겠습니다.

우리 <대성산>제품들은 머지않아 국제경기이전 국내경기이전 어디서나 금메달을 불러오게 될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룡악산의 메아리

예로부터 산봉우리가 마치 용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는것 같아 기묘하게 생겼다고 하여 『룡악산』이라고 부르고 경치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평양의 금강산이라고도 일러오는 풍치수려한 룡악산.

바로 그 기슭에 아이들의 야영소가 자리잡고 있다.

머나먼 인생길에 소년단시절을 추억할 때면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훌러간 한주일을 먼저 떠올릴 아이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야영의 하루하루는 즐거움과 랑만의 연속이다.

아름드리나무들이 꽉 들어차있는 대봉에로의 등산길에는 수십m나 되는 경사급하고 미끄러운 바위등판도 있고 당장이라도 굴러떨어질듯 길가에 묘하게 서있는 집채같은 바위들도 많다.

하지만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동무들과 함께 이 등산길에 자주 오르시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눈앞에 그려보며 소년단원들의 등산





대오는 쉬임없이 앞으로만 나아갔다.

날개라도 돋친듯 단숨에 대봉정점에 오른 애영생들은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하여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날 맹세를 다지였다.

제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보는 료리실습도 대인기였다.

간단한 료리방법에 대한 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료리사모자에 앞치마까지 척 두르고 대번에 급수있는 료리사가 된듯 음식감들을 칼도마우에 올려놓았다.

제손으로 처음 만든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웃음을 터치는 애영생들은 집에 가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수 있다는 신심에 넘쳐있다.

애영생들은 활쏘기장과 민속놀이장, 농구장과 전자오락실, 동물사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애영생활의 단면들을 사진화폭에 담아갔다.

제일 신바람나는것은 호수우에서의 뽀트놀이였다.

뽀트에 몸을 싣고 제손으로 노를 저으며 방향을 잡지 못해하는 아이들, 마음만 앞서다나니 본의 아니게 노대로 남들에게 물벼락을 들씌우는 아이들… 그래도 모두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의 웃



음이 한껏 넘쳐흘렀다.

지난 6월초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애영장의 수질상태를 알아보시고 조약대의 높이도 가늠해보시며 자연경치와 어울리게 물미끄럼대를 놓아주겠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수영장을 떠나기 싫어 할것이라고, 비가 와도 애영생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애영각에서 식당까지의 걸음길과 애외롱구장에 지붕을 씌워주자고, 동물사에는 희귀한 동물들을, 뽀트장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기재들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은정에 떠받들리워 출렁히 일떠선 애영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 울려나온다.

아이들의 웃음은 비록 작은것이지만 큰 메아리를 남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나날이 더 행복해지는 후대들의 모습이 그 웃음속에 비끼는것이기에…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사람도 산천도 달라지는 벽촌에서

우리가 탄 차는 평양을 떠나 몇시간쯤 달려서야 황해북도 린산군경계에 이르렀다.

높고 낮은 산들을 옆에 끼고 차가 달리는데 나이지숙한 한녀성이 우리에게 지금은 비록 산밖에 보이는것이 없지만 인증 새로이 변모되고있는 린산군의 모습을 보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쉬임없이 이어지는 녀인의 자랑에서 우리는 군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는것을 짐작 할수 있었다.

한동안 달리느라니 산골군의 이채로운 풍경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읍을 시원스레 가로질러 뻗어나간 넓은 도로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 외장재로 단장된 공공건물들과 절은 록음속에 들어앉은 공원과 휴식터들, 산골맛이 나면서도 현대

미가 살아나게 형성된 읍구획들마다에 들어선 다층, 단층살림집들…

산골군특유의 정서를 온몸으로 느끼며 읍의 전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군의 일군인 김종환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군은 농경지보다 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린산사람들은 별방과 도시를 부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을 새롭게 꾸려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산골군도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다는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있는 주인공들을 만나보고싶은 마음속충동을 안고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는 건재공장에 들려보았다. 공장에서는 지방의 흔한 원료에 의거하여 세멘트와 소석회를 생산하여 군건설대상들과 농장들에 보내주고 있다.

종업원이 수십명 밖에 안되고 그리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의 한해 생산량이 수천t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최근

에 설비를 개선하여 만든 세멘트가 이름난 세멘트공장들의 제품못지 않다는 지배인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이밖에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된 군문화회관, 버섯공장, 메기공장, 미래원, 은덕원, 식료공장 등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진폭되어 울려나오는 로라스케트장, 군에서 생산된 갖가지 식료품과 인민소비품으로 풍성한 매대들에서 우리는 이곳 사람들�이 지난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군인민병원을 비롯한 영예군인교려약공장에서는 이 고장에 흔한 약초들로 고려약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곳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매우 높은것을 알수 있었다. 그 비결을 우리는 린산의 자랑으로 불리우는 련풍리의 사슴목장과 련결시켜보았다. 우리가 『련풍금강』이라 불리우는 산기슭에서 방목지로부터 돌아오는 사슴무리들과 마주친것은 한낮이 퍽 지난 때였다. 진뿔을 머리에 인수사슴들의 뒤를 따라 점박이들

련풍리의 산마다에 사슴떼가 흐른다.



원격강의를 받고있는 청년들



버섯공장에서



자체로 꾸린 양묘장에서

이 폼통을 흔들며 조심스레 걸어오는 사슴무리의 모습은 주위의 자연풍치와 잘 어울려 한폭의 그림을 런상케 하였다.

전국적으로 자기네 목장만큼 사슴마리수가 많고 규모가 큰 목장은 아마 드물것이라는 리순규기사장의 말속에는 목장에 대한 남다른 궁지가 실려있었다. 목장에서 생산되고있는 록용과 록태 등의 약효능이 높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다고 말하는 방목공처녀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을 사진렌즈에 담는 우리에게 김종환은 말하였다.

《해방전 산간벽지로서 사람들이 쓸 자그마한 생활필수품조차 생산하지 못하던 린산군이 오늘은 튼튼한 지방공업을 가진 군으로,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전변된것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과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라관

을 가지고 자강력에 의거하였기 일떠섰다.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달라지는 벽촌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욱 좋아질 린산의 래일을 환희롭게 그려볼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재오스트랄리아전국련합회 사무국장 리문철형님 앞

형님의 당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을 만나본지도 벌써 여러해가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형님을 그리는 마음이 커만 가니 이렇게 편을 들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습니다.

편을 들고 새겨보니 제 나이도 벌써 74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여든살이 뛰 넘지 않았겠습니까.

한부모의 피를 받고 세상에 태여난 우리 형제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는 오늘까지 60여년을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막 쓰리고 아픕니다.

우리가 왜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놓고도 모자라 지난 세기 50년 대초에 조선전쟁을 일으키고 원자탄위협으로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렬의 아픔을 가져다 준 가증스러운 미제때문이었습니다. 정녕 미제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라는것이 이를수에 사무쳐옵니다.

어리석은 미제는 아직도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겠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으려 발악하고있습니다. 그런 미제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판가름을 하려 떨쳐나선 온 민족의 힘은 막지 못합니다.

조국인민들과 밭을 맞추어 해외에서 애국의 냄을 지켜가는 동포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이역땅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지금까지 모든것을 다 바쳐온 형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 만집니다.

지난번 형님이 저의 집에 왔을 때 한 말을 아직도 저는 잊지 않고있습니다.

《조국은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에게 정을 다하듯이 우리 눈을 감을 때까지 조국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하자.》

형님의 그 당부를 안고 저는 지난 기간 상원군 인민병원에서 부원장사업을 하면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빛내이기 위해 있는 힘껏 일하였습니다.

나라의 은덕으로 돈 한푼 내지 않고 의학공부를 하고 한개 군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일군으로까지 성장한 제가 달리야 살수 없지 않습니까.

20여년간 부원장으로 일해온 제가 이제는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나라의 혜택만을 받으며 근심걱정없으니 짚은 시절에 뭔가 더 많이 일하지 못한것이 후회됩니다.

몇해전 저는 뇌졸중을 앓았는데 치료를 많이 받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보건일군이었던 제가 환자가 되어 무상치료를 받고보니 정말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워주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떠나가는 우리 나라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에 넘쳐납니다.

저는 늘 형님이 저에게 하던 그 당부를 자식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을 졸업한 맏아들 성일이는 상원고치생산사업소 지배인이 되여 고치생산성파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늘 뽕밭에 나가 살고있습니다.

수도건설위원회의 일군인 둘째아들 성혁이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축미학사상을 받들어 언제나 바쁘게 일하고 있으며 인숙이와 정숙이 두 딸도 군복입은 남편과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깐지게 잘하고있습니다.

편지의 글줄을 이어갈수록 마치도 형님이 저의 곁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있는 것만 같습니다.

형님, 나이도 적지 않은데 이제는 건강에 류의하기 바랍니다.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첫째입니다.

건강한 형님과 조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이만 편을 놓겠습니다.

상봉의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황해북도 상원군 읍 144인민반
리문철동생 올림

조국의 품에 안겨

삶의 기준



박사 하수길

얼마전 우리는 의학과학원의 한 일군으로부터 자기기관의 의학과학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였다. 그 일군의 말에 의하면 40여년간 나라의 예방의학발전을 위해 누가 보건말건 자신

의 량심을 성실하게 바쳐오고 있는 그를 내세워주고 싶다는것이였다.

그가 바로 의학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 실장 박사 하수길이였다. 보통키와 그에 어울리는 체격, 침착한 말씨, 안경너머로 엿보이는 지성이 비낀 눈...

별다른 특징을 찾아볼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가 이룩한 연구성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년간에 연구개발한 C형간염예방약은 더욱 그러하였다.

《수십년간의 연구사업에서 제일 힘든 때가 있었다면 아마 C형간염예방약을 연구개발할 때일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그는 추억의 갈피를 더듬었다.

1990년대 중엽에 발전된 몇개 나라만이 독점하고있던 C형간염진단시약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식으로 개발하여 세계보건부문에 과문을 일으켰던 하수길은 지체없이 예방약개발에 달라붙었다.

당시 세계보건부문에서는 에이즈와 C형간염을 악성질병으로 지목하고있었다. 그것은 이 비루스들의 변이가 심한것으로 하여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었기 때문이였다.

누구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미지의 길에 그는 주저없이 들어섰다. 그것이 설사 아무리 어렵고 힘든것이라 할지라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되는것이라면 무조건 만들어내야 한다는것이 그의 연구사업의 자막대기였고 삶의 기준이였다. 그가 예방약연구개발에서 주의를 돌린것은 유전자배열이였다. 완전무결한 예방약을 만들어야 하는 조건에서 그 어떤 형태의 변이에도 다 일치되는 유전자배열을 찾아내야 교차반응성이 높은 약을 만들어낼수 있었다. 그는 유전자에서 변이가 제일 심한 부분을 선택한데 기초하여 예방약연구개발에서 핵심인 균주만드는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높은 연구목표를 안고 수백 차례의 분석실험을 하며 그가 지새운 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실패도 많았다. 그러나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불같은 열정을 안고 그는 우리 나라의 흔한 재료에 유전자를 넣고 배양하여 항원을 얻어내는데 끝내 성공하였다. 그는 즉시 동물실험을 해보았다. 실험결과는 성공적이였다. 이제는 인체에 접종하는 실험만이 남았다는 생각을 하자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때의 착잡한 심정을 두고 그는 말하였다.

세 세대 연구사들의 연구사업을 지도한다.





가족과 함께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접종을 과연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런 번거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나의 눈앞에 이역땅에서 살다가 따사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 흘러보낸 잊지 못할 나날들과 동지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 뼈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는 더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자기의 몸에 주사바늘을 꽂았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접종과정에 그는 C형 간염 예방약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완전성공이었다.

비단 그것뿐이 아니다. B형 간염 진단시약을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그가 나라의 의학과학발전에 쌓은 공로는 실로 대단하였다. 그의 집벽에 모셔져 있는 절세위인들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과 박사의 학위, 높은 국가수훈 등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행사 때 일본에서 살고 있는 그의 아버지(96살)와 밑형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아들이 찍은 기념사진들을 본 아버지는 정말 장하다고, 너와 같은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해 사회주의 강국이 빨리 온다며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지금 하수길은 일흔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정한 삶의 기준대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약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평양 국제 상품 전람회를 통하여 본 조국의 모습

해마다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봄과 가을에 두 차례씩 국제상품전람회가 열리고 있다.

평양 국제상품전람회는 자기의 성실한 노력으로 경제발전과 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세계 경제인들의 교류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봄철에 진행된 제19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는 이전 시기와 달리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제재와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시점에서 열린 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람회에는 우리 나라와 로마니아, 도이췰란드, 로씨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중국, 캄보쟈, 타이, 오스트랄리아,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웰남, 꾸바, 중국대북 등 여러 나라의 220여개 회사들에서 수많은 제품들을 출품하였다.

전람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들은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고국인민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국주의 자들의 제재책동이 날로 로골화되어도 조선과 정상적인 경제무역교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경제인들의 활동은 막을 수 없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국 단동홍성경무유한공사 총사장 한연옥동포는 《나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진행되는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 꼭꼭 참가하군 한다. 내가 고국과 손을 잡고 무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은 나의 물질적 부를 늘이기 위한 데 있는 것 보다도 조선 사람으로서 고국에 적으나마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다. 위대한 고국이 있기에 나와 같은 해외동포들도 조선 사람이라는 긍지를 안고 멋떳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국 청도개서달새에 네르기 유한공사 총경리 정상군동포는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5년 만에 평양에 왔는데 참으로 많은 것이 변하여 감정이 새롭다. 사실 그간 나는 우정 기회를 마련하여서라도 고국에 와보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경제인이 되여 평양에서 열린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고 보니 고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대하여 새로운 눈으로 투시해 볼 수 있었다. 제국주의 자들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고국은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고국의 제

품들은 국내의 우수한 원료와 자기의 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된 것으로 하여 그 질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온 박용석동포 역시 자기는 해마다 평양 국제상품전람회를 통하여 고국의 발전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고국의 힘과 지혜, 원료와 자재에 의거한 자강력제일주의의 산물인 고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보고 사회주의 강국은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건설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련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한연옥



박용석



대외 투자관계의 확대 발전에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개발구창설에서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공인된 것은 공화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화물수송뿐 아니라 전략적 에너지자원분배에서도 태평양 지역 나라들과 중국 및 로시아나아가서 유럽나라들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중요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현시기 공화국에서의 경제개발구창설은 매우 락관적이다.

현시기 공화국정부는 경제개발구창설에 필요한 모든 법적 및 행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특히 혜적인 세금제도와 부동산거래제도, 기업창설제도, 무역활동제도 등의 특혜제도와 자유로운 인원출입, 물자반출입, 로력보장, 생산물판매, 과학기술봉사, 금융 및 보험 등의 외부지원환경들을 보다 유리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화국정부는 지리적으로 유

리한 지역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구들의 위치를 정하였으며 개발기업을 비롯한 모든 외국투자기업들에 최대한의 편리를 보장하도록 토지리용승인수속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토지리용료와 리용기간(보통 50년)도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토지와 하부구조개발과 관련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제입찰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외투자가의 단독개발방식이나 공동개발방식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수많은 대학들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졸업생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첨단과학기술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고급한 기술자, 전문가들도 경제개발구에 들어오는 외국투자기업들의 관심을 끄는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유치촉진조건으로 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의 모든 근로자들은 일반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외국

인투자가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정신력과 기술기능수준, 노동활동에서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높은 것이 공화국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우월성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공화국정부는 자기의 적극적인 활동계획에 따라 대단히 전망이 좋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홍남공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들에서 토지와 하부구조건설을 위한 기업체들을 선정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많은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구창설에 참가하거나 투자할 의향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오고 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대외투자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끝)

인민경제대학 강좌장 교수 박사 조창준

상식

민속무용 《돈돌라리》

《돈돌라리》는 조국의 함경도 동해안지방의 민속무용이다.

춤은 원래 북청지방 여성들이 달래를 캐면서 추던 둔무형식의 춤이였다.

그후 일제의 군사적 강점시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조국 해방의 새 날이 하루빨리 동터오기를 바라는 인민들의 염원을 담아 《동틀날》로 불리워지면서 보다 대중적인 춤으로 추어졌다.

춤은 흥겨운 장단을 타고 물을 가득 채운 함지나 놋그릇에 바지지를 엎어놓고 막대기나 맨손바닥으로 그것을 두드려 공글고 부드러운 소리의 리듬으로 흥취를 돋구었

다. 강약이 명확한 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젖걸음을 크게 내짚고 깊은 굴신을 하다가 다음번부터 얇은 굴신으로 가볍게 걸어나가는 걸기동작은 어찌 보면 한발을 잘倨거리는 듯 한 독특한 풀동감을 자아낸다.

또한 걸기동동에 맞추어 머리와 함께 두팔을 좌우로 살래살래 흔들다가 두손목을 강하게 퍼며 한동작을 매듭짓는 가락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온몸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면서 손목을 돌려 얼굴을 살짝살짝 가리우는 동작, 그와 대조되게 두팔을 앞뒤로 활달하게 흔들며 스쳐돌려가는 동작, 땅에 무릎을 대고 몸방향을 급속히 바꾸거나 허리를 들어돌리며 바가지장단을 치는 동작 등은 돈돌라리 춤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동작들이다.

춤은 오늘의 시대적미감에 맞게 새롭게 형상되어 조국 인민들 속에서 더욱 사랑을 받고 있다.

* * *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사람마다 생활에서 느끼는 기쁨은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그 모든 기쁨 가운데서도 내가 조국에 와서 맛보는 그 류다른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나는 2016년 봄철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경기에 참가하였다.

평시에 탁구를 좋아한 나는 지난해부터 이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

사실 나는 지난해에 투지상을 받은 전적을 가지고 올해 경기에 자신만만하게 나섰다.

그런데 예상외로 맞다드는 선수들이 만만치 않았다.

2급(50대 나이) 경기에 출전했던 나는 경기에서 지고 말았다. 물론 나의 몸상태가 좋지 못한 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선수들의 수준이 전문가들 못지 않았던 것이다.

나와 경기를 한 사람들은 나보다 한두 살씩은 더 많아 보였는데 어찌나 정력이 넘치는지

젊은이들도 왔다가 읊고 갈 정도였다.

그런데 경기에서 지면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을 느껴야겠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왜서인지 기쁘기만 하였다.

나를 기쁘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기장에 차넘치는 희열과 날로 높아지는 대중체육 열기였다.

이기라고 응원하는 가족들, 직장사람들,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 없이 발휘하여 정상사람들을 이기는 장애자들, 로령한 애호가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정말 이 몇 해 간에 조국의 여리곳을 방문하면서 느꼈지만 조국의 그 어디에나 대중체육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꾸려져 있어 누구나 집가까이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배구, 탁구, 정구, 롱구 등 그 종목은 실로 다양하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데

가서나 탁구를 한번 쳐보면 상대편 선수들이 다 전문체육인들처럼 느껴졌다.

어디 그뿐인가.

장애인들도 아무 구김살 없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꽂피울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다 보장되어 있었다.

아마 그래서 조국의 체육인들과 장애 자체 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날로 승승장구하는 조국의 모습이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주는가를 조국인민들은 다는 모르고 있다.

나는 앞으로 장애자들을 위해 많은 체육기재들을 기증하는 것을 비롯하여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 한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송영철



경기에 참가하여 상장과 기념품을 받아안은 송영철(왼쪽 첫 번째)

그 누구도 우리 조국을 건드릴수 없다

참가자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리순남: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
김영녀: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본사기자: 한신애

기자: 조국에 온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조국땅에서 맞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싶어 이렇게 자리 를 같이 하였습니다.

차상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얼마나 우리 인민이 바라던 대회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대회에 해외에 있는 저희들이 참가하였다는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당대회에 참가하고 또 당대회경축행사들에 참가하여 받아안은 감홍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일 강렬하게 느낀것은 우리 조국이 그 누구도, 그 어떤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힘을 지니고있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최수봉: 우리 조국이 지니고있는 그 위대한 힘은 다름아닌 일심단결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에서 저희들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심단결의 힘을 보았습니다. 만세의 환호성높이 광장앞을 지나는 시위군중의 모습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토하고 진정으로 따르는 조국인민의 모습 그대로였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굳게 뭉친 조국의 모습이였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뭉친 이 일심단결의 힘이야말로 그 무엇도 이길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도 알고있다실이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는것이 바로 조선혁명입니다.

돌이켜보면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던 그때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의 힘으로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였으며 그 사상의 힘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강적들을 타승하고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습니다.

차상보: 옳은 말입니다. 나라가 해방되어 지난 70여년간 우리 조국이 걸어온 전로정은 제국주의 반동들과의 치렬한 투쟁이였습니다. 걸음걸음 따르는 적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 조국인민이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김일성-김정일 주의가 앞길을 밝혀주었기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기치가 있어 조국인민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였고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였습니다.

리순남: 우리 조국의 국력은 일심단결과 함께 불패의 군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참화가 그치지 않고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전쟁의 포성이 한번도 울리지 않았으며 인민들은 비록 생활이 유족하지는 못해도 전쟁을 모르는 속에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오고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군정치의 덕이 아니겠습니까.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선군정치가 있어 오늘 조국이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녀: 지금 조국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고있으며 세차례의 지하핵시험과 첫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하였습니다. 수소탄시험에서의 성공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우주궤도진입은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미제의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하



과학기술강국,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나는 이번에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재중조선인 예술단 후원단성원의 한 사람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지금까지 조국방문을 여러번 하면서 느끼는바가 많았지만 이번에 받은 감홍은 참으로 컸다. 특히 새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의 모습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과학기술전당은 건축물의 형식도 독특하고 멋쟁이건축물인데다가 내부 또한 세계최상급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주시

였습니다. 우린 그때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기자: 이런 일심단결과 불패의 선군정치가 있기에 사회주의강국은 반드시 일떠설것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의 날은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수봉: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조국인민들을 보니 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를 심도있게 학습하여 협력사업을 더 잘해나가며 동포들을 조직의 두리에 더욱 굳건히 뚫어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국에 와서 본 모든것을 동포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어 그들이 조국을 더 잘 알고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적극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김영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청년들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기 이에 조국에서는 청년중시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을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런 청년강국의 모습에 우리 동포청년들의 모습도 어려있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동포청년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훌륭히 키워 동포조직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민족의 넋과 숨결을 심어주고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청년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며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였으며 현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전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참으로 많은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고 하는데 진정 그이의 세심하고 극진한 사랑과 정을 나는 전당의 가는 곳마다에서 또 구석구석에서 느낄수 있었다.

이렇게 훌륭하게 꾸려진 과학기술전당에서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누구나 다 와서 마음껏 배우니 앞으로 조국이 가까운 앞날에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이 차넘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이런 훌륭한 건축물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한 조국의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립순자

알아내여 청년들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서도록 있는 힘껏 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국의 청년들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에 동포청년들의 발자취도 깊이 새겨지게 하겠습니다.

리순남: 솔직히 말하여 저는 우리 경제인련합회가 지난 기간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국에 와서 과학기술전당이며 미래과학자거리,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조국인민들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였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적극 추진하고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는 조국인민들의 발걸음에 우리 경제인들도 발걸음을 맞추어 온넋으로 조국을 받들어나가겠습니다.

차상보: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는 모든 승리의 원천이고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담보입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압력과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도 하나로 굳게 뭉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사상으로 위력하고 총대로 굳게 다져진 우리 조국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고맙습니다.

* * *

미국에 보내는 강력한 선언

공화국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0》시험발사의 대성공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 재미동포전국련합회가 론평을 발표하였다.

《화성-10》은 미국에 보내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6월 25일을 앞두고 성공한 《화성-10》시험발사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을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처지, 실지로 패배나 다름 없는 미국의 봄서리치는 악몽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선언이다. 북은 이번 시험발사로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북을 상대로 저지른 《대북》적 대정책, 핵전쟁훈련이 북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것을 미국에 보여주었다.

...

《화성-10》시험발사가 여러번 실패하였지만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격려하시며 기어코 성공하도록 이끄시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할것이라고 맹약하시였다. 북은 《화성-10》을 쏘아올려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한것이다. 즉 세계자주화실현투쟁의 봉화를 올린 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에 종말을 선고하고 미국의 신화를 깨부심으로써 제국주의 미국과 충분히 싸울수 있다는 신심을 드높여주었다. 이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북의 선군정치를 믿고 대미항전에 다같이 나설것이다.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미국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론평은 고각발사는 뛰여난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고각발사시험을 한례가 없다고 하면서 북은 고각발사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을 겸했다고 할수 있다고 평하였다.

《화성-10》의 탄두부가 뾰족하지 않고 둥그스름한것은 대륙간탄도미싸일 탄두부와 동일한 모양으로서 그안에 바로 소형화, 정밀화된 핵탄두가 여러개 들어간다는것을 의미한다, 《화성-10》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핵탄두를 실은 대륙간탄도미싸일이 대기권진입에 아무 문제없이 미국본토까지 도달하게 된다, 《화성-10》시험발사성공으로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은 무위로 끝났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 * *

조선속담 (경멸)

-부처님더러 생선 방어로막을 도적하여 먹었다 한다

생선을 먹지도 않는다는 부처더러 생선 방어로막을 도적질하여 먹었다고 한다는 뜻으로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것을 이르는 말.

-술잎이 버썩하니 가랑잎이 헐말았다

제게는 가져다 대지도 못할 하찮은 일을 들고나와 먼저 야단스럽게 떠들어대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음을 비겨 이르는 말.

-끼마귀가 아저씨하겠다

손발이나 몸에 때가 너무 올라서

시꺼멓고 더러운것을 놀림조로 이

르는 말. 참고: 까마귀사촌

-꼴에 군밤 사먹겠다

갈지 않은 주제에 분에 넘치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발가락 리눈만큼도 안여긴다

남을 몹시 깔보고 업신여기는 모

양을 비겨 이르는 말.

-어디 개가 짖느냐 한다

남을 멸시하여 그의 말을 들은체

도 안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을바자가 헐면 이웃집 개가 드나든다

자기 약점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멸시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 *

《덩덕쿵》장단소리에 이끌려

중국 심양시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운영하는 모란예술양성센터가 있다.

센터에서는 많은 동포들과 그 자녀들이 무용과 성악, 기악 등을 배우고 있다.

얼마전 심양시를 찾았던 우리는 조선민요가락이 울려나오는 모란예술양성센터에 들리였다.

센터에 들어서니 《덩덕쿵》하는 장단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도 모르게 흥그려워지는 장단소리에 마음이 끌리여 우리는 무용반부터 먼저 찾았다.

거기에서는 김소, 김려쌍둥이자매와 림복미 등 여려명의 학생들이 장고를 메고 흥이 나서 춤을 추고 있었다. 팔을 굽게 들었다놓으며 장고를 치고 노래의 률동에 맞추어 몸을 빙그르릉 돌리며 방안을 돌아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부모들이 있어 무용실은 더욱 흥성이였다.

손에 채를 잡고 률동속에 장고를 치는 쌍둥이딸애들의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며 아버지 김용철은 이곳에서 무용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여러 예술경연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런가 하면 림복미의 어머니는 자기는 무용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딸에게 이왕이면 민족무용을 배워주고 싶었다고, 그 소원을 여기 모란예술양성센터에서 풀었다고 말하였다.

실지 그랬다.



기악소조실에서의 피아노수업

심양시실험학교 학생 리윤서(9살)는 심양성경예술단 예술경연에서 2차례나 1등을 하였고 서탑조선족소학교 학생 림복미(10살)는 올해 2월 중국 홍콩에서 진행된 국제아동예술축전에 독무 《칼춤》을 내놓아 1등을 하였다.

우리는 자기의것을 지키고 빛내여가려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애국의 마음을 한껏 느끼며 이번에는 성악반에 들리였다.

거기에서는 서탑조선족소학교에서 공부하는 리원기(8살)가 조선노래를 배우고 있었다.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지 불과 6개월 남짓 하지만 제법 노래를 흥취나게 잘 불렀다.

우리는 조선사람으로서 민족의 전통을 잘 알고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국의 예술을 배워



민족의 춤가락을 살려나가도록



가을철의 보양음식 추어탕

우리 여성들은 가을철이 오면 가족들의 건강에 관심을 더 돌리게 됩니다.

봄철에 몸관리를 잘하면 무더운 여름을 쉽게 이겨낼수 있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일컫는 가을철에 몸을 튼튼히 하면 엄혹한 겨울을 무난히 넘길수 있다고 생각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철에 어떤 보양음식이 제일 이겠는지 두루 품아보았습니다.

그러던중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조선료리강좌 교원 리광훈선생께서 추어탕을 소개하는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게 되였습니다.

우리와 만난 광훈선생은 『미꾸라지를 왜 추어라고 하는지 그 이름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라고 묻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을 하기에 앞서 언제인가 미꾸라지를 살 때 있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웃음이 나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꾸라지를 파는 여성판매원이 미꾸라지가 검은 몸통을 뱀처럼 마구 구불거리는 모양이 너무 추해서 추어라는 이름도 가지고있는것 같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판매원의 말을 다시 외우자 광훈선생은 크게 소리내여 웃었습니다.

그리면서 『기자선생도 그렇게 알고있습니까?』라고 묻는것이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미꾸라지는 가을에 제일 약효가 있기때문에 『추어』라고도 부른다고 말하자 그는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그리니 가을철의 보양음식으로서야 이름까지 추어라고 불여진 미꾸라지를 내놓고 어떤 음식을 첫손가락에 품을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꾸라지의 영양학적가치와 약리적 작

상식

코감기를 미리 막자면

- ① 기온의 변화에 따라 알맞춤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 ② 추운 계절에 잠을 잘 때 기온에 맞게 옷을 입고 덮개를 덮고 자야 한다.

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꾸라지에는 필수아미노산들인 메티오닌, 아르기닌, 프롤린을 비롯한 질좋은 단백질들이 들어있으며 불포화기름산과 비타민A, B2, Ca(칼시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광물질들이 함유되어있어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미꾸라지를 치료식사로 많이 이용하여왔습니다. 미꾸라지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간기능회복과 기다 결핵이나 당뇨병, 음위증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젖떼기음식으로 미꾸라지죽을 자주 쿠군 하였습니다.

미꾸라지를 푹 삶아 뼈를 추려낸 후 거기에 쌀을 두고 죽을 쑤어 아이에게 먹이였더니 얼마나 지나지 않아 보동보동 살이 오르는것이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리광훈선생께서 미꾸라지탕 다시말하여 추어탕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여러가지 부재료와 함

께 끓여서 만든 탕인데 만드는 방법은 지방마다 각이합니다.

탕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먼저 산 미꾸라지를 2~3%의 소금물에 담그어 해감내를 빼버린 다음 물에서 건져 다시 소금을 뿐여 걸면의 점성물질을 어느 정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깨끗이 씻어 일정한 크기로 썰어놓습니다.

연한 소금물에 생강편과 파토막을 넣고 한소끔 끓여다가 미꾸라지를 둡니다.

미꾸라지가 익으면 다져서 슬쩍 볶은 소고기를 넣고 더 끓여다가 풀어놓은 된장이나 고추장, 쭈갓과 미나리를 넣고 한소끔 더 끓인 다음 썬 두부를 둡니다. 두부가 떠오르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송송 썬 고추와 파, 다진 마늘, 후추가루, 생강즙 등을 뿐립니다. 추어탕은 된장이나 고추장국물에 끓여야 구수한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추어탕은 또한 깨끗이 씻어 순질한 산 미꾸라지를 뜨거운 순두부국물에 넣어 미꾸라지가 순두부속으로 들어가 죽게 한 다음 순두부를 보에

싸서 모두부를 만들고 이 모두부를 일정한 크기로 썰어 장국물에 넣어 탕을 만들기도 합니다.』

독자여러분, 추어탕은 우에서 보다싶이 만드는 데서 크게 품이 들지 않으면서도 어린이로부터로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누구나의 건강을 담보해주는 훌륭한 가을철보양음식의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만 끝맺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③ 땀으로 속옷이 젖으면 인차 갈아입어야 한다.

④ 실내온도가 높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지 말아야 한다.

⑤ 몸단련을 적극적으로 하며 겨울에도 찬물로 세면하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⑥ 영양관리에 주의를 돌리며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해야 한다.

⑦ 야외활동을 많이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한다.

⑧ 코병, 후두염, 편도염을 제때에 치료해야 한다.

⑨ 매일 아침 소금물로 입가심을 해야 한다.

* * *



성악실에서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떨애를 여기에 보냈다는 리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악소조실을 비롯한 양성센터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센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술수업을 받고있는 학생들이 신동으로 자라나고있는것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의 실력이 매우 높은데 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민족의 냄을 지켜나가려는 동포들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는 『덩덕쿵』장단소리가 울려나오는 모란예술양성센터를 나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상식

불화살

우리 나라의 무기발전사에는 불화살인 신기전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있다.

신기전은 그 크기와 구조에 따라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으로 구별되어있다. 소신기전은 화살의 꼬리부분에 있는 약통에 불을 달았을 때 뒤로 내뿜는 화약가스의 힘으로 앞으로 나가다가 화약이 다 탔을 때 그앞에 있는 외통에 불이 넘어가 먼곳까지 날아갈수 있게 한 일종의 2단로켓였다.

중신기전은 소신기전보다 소발화라고 하는 화약통이 하나 더 있는것이였고 대신기전은 약통, 외통, 지화, 소발화의 4개 화약통이 달려있는것이었다.

특히 대신기전은 허리부분에 날개까지 달려있어서 정확히 비행할수 있었다. 15세기에 이처럼 우수한 불화살을 창안제작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무기발전사에서 하나의 큰 자랑으로 된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러한 대체단불화살을 리용하기 시작한것은 17세기부터였다

* * *

추석날 풍습

음력 8월 보름날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인 추석이다.

올해는 9월 15일이 추석이다.

추석은 예로부터 선조들이 설명절과 함께 년중에 가장 크게 쇠여온 민속명절의 하나이다.

추석이란 가을저녁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오후백과 무르이는 풍요한 가을철의 달밝은 보름날을 명절로 즐긴데서부터 생겨난 이름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롯한 옛 기록들에 의하면 추석은 이미 삼국시기초에 《가배날》이라고 하면서 큰 명절로 쇠여왔는데 이날 조상의 무덤을 찾아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활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기를 진행하여 우수한 사람들에게 말파 천을 상으로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김매기가 끝난 음력 7월 16일부터 한 달동안 여성들이 편을 갈라 길쌈경기를 벌려오다가 8월 15일에 총화를 하고 진편에서 이긴

편에 음식을 차려놓고 춤추고 노래부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추석명절의 첫 의례는 조상의 묘를 찾아보는것이였는데 지난 날 이것을 성묘, 산소보기, 뵐보기라고 하였다.

추석명절을 맞으며 조상들의 묘를 먼저 찾아풀도 베주고 그해의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제사를 지낸것은 언제나 웃사람을 존경하고 레절이 밝으며 의리가 깊은 조선인민의 고상한 미풍양속의 반영이다.

추석날의 민속음식으로는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과 함께 찰떡, 노치, 밤단자, 찹쌀로 만든 청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류 등이 있다.

지방마다 자기의 특색을 살려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로 만든 송편은 추석날 음식에서 빠져서는 안되는것으로서 추석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이였으며 찹쌀가루와 길금가루 등을 리용하여 만든 노치는 평양지방의 특식으로 유명하였다.

추석을 맞으며 민족체육경기의 하나인 씨름경기가 진행된다.



노치는 평양지방에서 추석날 음식으로 유명하다.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0)

- 통악산의 법운암 -

평양의 력사유적을 소개하기 위한 우리의 취재 길은 어느덧 마감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해발높이 293m인 통악산으로 향하였습니다.

통악산은 기묘한 바위봉우리가 하늘높이 솟아 있고 만발한 온갖 꽃들과 록음질은 숲, 가을의 붉은 단풍이 신비하게 조화를 이루어 일찍부터 평양의 금강산으로 불리워왔습니다.

통악산이란 이름도 바로 산봉우리가 마치 통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것과도 같은 기묘한 생김새를 갖추고 있다하여 생기였다고 합니다.

통악산에는 600여종의 식물들이 퍼져있는데 매화노루발풀, 병아리란을 비롯하여 희귀한 식물들도 있으며 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특별히 보호관리되고 있는 통악산느티나무, 통악산참중나무, 통악산화나무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기간 통악산에 자주 오르시어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힌 조국의 현실을 굽어보시며 열렬한 애국심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키우시고 나라찾을 원대한 뜻을 무르익혀가신 이야기와 해방후에 몸소 산을 오르시면서 등산로정도 잡아주시며 통악산을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리도록 여러 차례의 현지지도와 교시를 주신 이야기,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통악산 대봉에까지 오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새 조국건설방침과 교외의 유원지건설

전망을 하루빨리 실현하도록 일군들을 뜨겁게 고무하신 이야기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 제1중학교(당시) 학생들을 이끄시고 산에 오르시여 여러가지 파외활동을 조직지도하신 불멸의 사적도 아로새겨져있습니다.

더우기 통악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런 고대건축물들은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적재부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민족문화를 비관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잘 보존할데 대한 교시를 주신 법운암이 있습니다.

법운암은 고구려시기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 조시기에 고쳐지었다고 전해오고있는 사찰입니다.

법운암비문이나 그밖의 기록, 법운암의 밀단에 쌓은 돌을 다듬은 수법이 고구려성돌과 같은것 그리고 이 부근에서 고구려시기의 수기와 막새들이 발견된것을 보면 법운암을 고구려때에 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깎아지른듯 한 높은 벼랑을 배경으로 본전과 라한전, 산신각, 칠성각, 승방 등 다섯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법운암은 통악산의 지형조건에 알맞게 배치되어있습니다.

법운암의 본전은 높은 밀단위에 세운 정면 5간 (10. 27m), 측면 3간(6. 2m)으로 되었는데 2의 공두공을 얹은 14개의 훌림기둥이 합각지붕을 떠받들고있습니다.

집안에는 마루방과 온돌방을 꾸렸고 제공은 짧은편이며 두공구조는 섬세하고 세련되어있습니다.



흙산

645년 고구려의 안시성인민들이 성주인 양만춘의 지휘하에 외적을 반대하여 싸우던 때의 일이다. 당시 적들은 수만의 군사로 안시성을 포위하고 수십일동안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하루에 6~7차례씩 공격하였으나 성을 점령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성결에다 60일동안에 50만공수를 들여 흙산을 쌓았다.

적들이 안시성보다 두어길이 나 높은 흙산을 쌓고 그우에 올리가 성안을 들여다보면서 화살을 쏘아대자 안시성을 방어하던 군사들과 인민들은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8월 하순 어느 날이였다. 흙산의 한모퉁이가 무너져 내리면서 성벽을 치는 바람에 성벽 한 부분이 깨여졌다.

《성이 깨여졌다.》

이렇게 소리치는 방어자들은 당황하였다. 어찌 할바를 몰라하던 방어자들은 성문우에서 싸움을 지휘하고 있는 양만춘에게로 달려갔다.

《성주님, 성이 무너졌나이다!》

《뭐라구?》

양만춘은 놀라며 성에서 내려 성이 무너진 곳으로 갔다. 파연 성이 무너져 흙무지에 묻히우고 훽하니 흙산을 향해 열려져 있었

다. 적들은 성이 무너진 것을 알고 창칼을 비껴들고 함성을 지르며 공격하여왔다. 이 위태로운 순간 양만춘은 성안이 찌렁찌렁하도록 소리쳤다.

《무너진 성으로 어찌 적들만 들어올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느냐? 적들을 반격하라고 성이 열린것이다!》

그 소리에 방어자들은 눈이 번쩍 트이였다.

《열려진 성으로 모두 떨쳐나가 흙산을 빼앗자!》

양만춘은 칼을 휘두르면서 적들을 향해 반격해나갔다. 이것을 본 성방어자들은 사기충천

하여 일제히 양만춘의 뒤를 따라 흙산으로 돌진해올랐다. 적의 약점을 안 성방어자들은 여유있게 적들을 쳐갈기면서 순식간에 흙산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성을 위협하던 적의 흙산은 방어의 흙산으로 변하게 되었다.

뜻밖에 큰 승전을 거둔 안시성 방어자들은 너무 기뻐 환성을 울리였다. 그리고 위기에서 성을 구원한 양만춘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성주님, 잠시나마 당황했던 우리가 죄스럽나이다.》

《성주님이 아니였더라면 이런 승전은 생각지도 못했을것이옵니다.》

이 말을 듣고 호탕하게 웃고 난 양만춘은 이렇게 말하였다.

《병서에 있는대로 했을뿐이다. 병서에는 적파의 싸움에서 지형을 잘 쓰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급변한 정황도 리용하기에 달린것이라고 본다. …》

《잘 알겠나이다.》

적들은 흙산을 빼앗으려 3일 동안 련속 공격을 들이대었으나 흙산밑에 시체더미만 쌓아놓을 뿐이였다.

적들은 승산없는 오랜 싸움에서 사기를 잃고 주저앉기 시작했으며 식량마저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리였다.

이리하여 적들은 고구려 북쪽 판문의 한개 성인 안시성의 군사들과 인민들의 방어에 부딪쳐 88일간이나 싸우다 실패하고 제나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외적의 우두머리는 쫓기여갈 때 참패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고구려 군사들과 인민들의 완강한 애국심에 감동되서인지 연개소문에게는 활파 군복을, 양만춘에게는 겹실로 짠 명주 100필을 보냈다. 세상에 패전한 두목이 승리한 대방의 장수들에게 값비싼 혜물을 사례로 바치고 간 일은 이때밖에 없었을것이다.

* * *

법운암은 특이하게 정면과 측면의 앞쪽 한간은 겹쳐마에 2익공바깥도리식으로 하고 측면의 뒤쪽 2간과 후면을 흘쳐마에 단익공주도리식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면에는 화반을 놓고 후면에는 화반을 놓지 않았으며 대들보밑에는 초엽을 달아 보기에도 좋고 튼튼하게도 하였습니다.

인민들의 재능이 깃들어있는 법운암은 귀중한 민

족문화유산으로서 국보로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평양시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안겨오고 풍요한 농촌풍경도 다같이 볼수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통악산으로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동포여러분도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리라고 믿어하지 않습니다.

본사기자 유선화

민족의 자랑-금속활자 새로 발굴

얼마전 개성 만월대에서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민족의 자랑인 금속활자 4점이 새로 발굴되었다.

이번에 발굴된 금속활자들은 《물흐르는 모양 칙》, 《지게미 조》, 《이름 명》, 《눈밝을 명》 자이다.

이 금속활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학학회, 고고학학회, 민족고전학학회 협회에서 고려시기인 12~13세기에 주조되어 사용되었다는것이 고증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고려시기인 12세기초에 인류 문화발전에서 획기적사변의 하나로 되는 금속활자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하고 사용함으로써 세계출판인쇄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조선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1423년에 네데를란드에서, 1450년에 도이췰란드에서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사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고려에서 금속활자의 발명은 그보다 근 300년이나 앞선 것으로 된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며 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해낼데 대한 공화국의 정책에 의하여 외래침략자들의 파괴략탈행위로 말미암아 역사의 이끼속에 사라졌던 고려의 금속활자가 또다시 발굴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가치있는 역사유적유물들에 대한 조사발굴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고려의 왕궁터인 개성 만월

대에서 주체45(1956)년에 한점의 금속활자를 발견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또 한점의 금속활자를 발굴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학술연구집단은 지난 3월 중순부터 만월대 서부건축군에 대한 조사 발굴사업에 달라붙었다.

연구성원들과 유적 발굴대원들은 서부건축군 남쪽부분에 대한 역사기록자료연구와 지난 시기 진행된 시굴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세밀히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이미 발굴한 2점의 금속활자의 출토위치가 거의 일치하다는것을 밝히였다.

수십일동안 200여 m²의 발굴면적에 대한 채추기 등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과정에 새로 찾아낸 4점의 금속활자의 성분을 김일성종합대학 분석연구소에서 분석한데 의하면 그 재질이 모두 청동이라는것이 밝혀졌다.

그중 3점의 금속활자는 이미 발견된 금속활자들과 마찬가지로 크기가 가로 12~13mm, 세로 10~11mm, 높이 6~7mm인 직6면체모양이며 앞면에는 글자가 도드라져있고 뒷면에는 구슬 또는 반구모양의 홈이 있다.

《눈밝을 명》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금속활자들보다 작은 활자로서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각각 7mm, 6mm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금속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단번에 발굴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 공히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발명국이라는 물적자료들이 더욱 풍부해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고려시기 무관이며 문인이었던 김희제

고려시기 13세기 초엽에 활동하였던 김희제는 남달리 뛰여난 무관으로, 문인으로 명성을 떨치였다. 그는 본래 전라북도 군산도에서 태여났지만 부모들이 개경(개성)으로 거쳐를 옮김으로써 수도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김희제는 처음에 감목, 산원 등의 낮은 벼슬자리에 등용되었지만 점차 승진하여 충청도 안찰사로 되었다가 장군으로까지 되었다. 그것은 그가 대반론다가 굳센 담력과 지략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새로 일떠선 몽골(원)파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립장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하여 그는 봉건정부의 위임을 받고 몽골정부의 사신을 영접하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능란한 외교활동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손색없이 처리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몽골사신으로 왔던 회속 불화가 국왕이 마련한 환영연에 활과 화살집을 메고 참석 하려고 하였다. 그때 그는 몽골사신에게 그러한 불손한 태도가 국가간의 협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면서 그의 오만무례한 행위를 저지시키였다.

김희제는 그후 의주분도장군으로 임명되어 금나라(녀진족이 세운 나라)의 잔존세력인 우가하부대의 침입을 막기 위

한 전투들을 지휘하여 큰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는 그때 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데만 그치지 않고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우가하의 병영을 습격하여 많은 적을 생포하고 물자들을 실은 22척의 배를 로획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심대한 타격을 받은 우가하가 그후에도 고려에 대한 침략 기도를 포기하지 않자 김희제는 1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금나라의 거점인 석성을 공격하여 성을 점령하고 적을 폐멸시켰다.

유능한 군사지휘관인 동시에 그는 시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금나라 침략자들에게 섬멸적 타

격을 안긴데 대하여 《한번 장검을 휘두르며 마산을 가리키니 호군의 무리들이 막 쓰러져 가누나 아 용사들이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다섯 강을 건넜는데 적들의 성곽들 모두 재더미로 되었어라》라고 노래함으로써 승리를 이룩한 고려군사들의 용맹과 적들의 패배상을 힘 있게 보여주었다.

그후에도 김희제는 몽골과 료나라, 금나라 잔존세력들이 료동지방을 서로 쟁탈하기 위한 싸움을 벌리면서 호시탐탐 고려를 노리고 있던 때에 능숙한 외교활동가, 군사지휘관으로 활약하면서 북쪽 국경지대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김희제는 그후 의주분도장군으로 임명되어 금나라(녀진족이 세운 나라)의 잔존세력인 우가하부대의 침입을 막기 위

한 전투들을 지휘하여 큰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는 그때 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데만 그치지 않고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우가하의 병영을 습격하여 많은 적을 생포하고 물자들을 실은 22척의 배를 로획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이 위업을 이어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천명 하시였다.

그 이께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주체적 통일로선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으로 정립되어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되었다.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의 가치,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것이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따라서 온 겨레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판점과 입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조국통일3대헌장

가져야 한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런 외세에게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구걸하는 것은 곧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며 반통일 행위로 된다.

승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승배하고 밀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밀어야 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혼의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온 겨레는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오랜 투쟁 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결,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누구나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이유로 될 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이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 수 없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 량심이 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

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민족대단결리념, 우리 민족끼리리념이다.

온 겨레는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 전제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체결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년 이상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켜왔다. 지금 미국이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걸고들며 그 무슨 《위협》에 대해 떠드는 것은 저들의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아시아지배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

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룹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 중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이 통일방식은 이미 북과 남이 6·15 공동선언에서 공화국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 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겨레 앞에 다진 공약과 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에 등을 돌려대고 실현될 수 없는 《제도통일》에 매달리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내외에 천명한 대로 련방제방식의 통일 실현에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 실현을 위한 조국통일3대헌장을 억세계 틀어쥐고 온갖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조국땅 위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 빨리 일떠세워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강경수

뿔력불가담운동과 반제자주의 가치

9월 1일은 뿐력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이 맞는 국 제적명절이다.

지금으로부터 55년전인 주체50(1961)년 9월 1일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뿐력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열리였다.

뿔력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은 이날을 뿐력불가담의 날로 선포하고 해마다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 뿐력불가담나라들뿐아니라 유엔에서도 이날을 기념하기로 한것은 세계정치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뿐력불가담운동의 지위와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초기 25개 성원국이었던 뿐력불가담운동은 오늘 세계 5대륙의 120여개 나라들을 망라한 폭넓은 운동으로 확대되어 세계정세발전과 국제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뿔력불가담운동의 출현으로 세계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자주력량은 결정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심히 약화되었다.

뿔력불가담이라는 말은 그 어떤 군사뿔력에도 가담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므로 뿐력불가담운동은 자주시대의 필연적결과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64(1975)년 8월 우리 나라가 뿐력불가담운동 성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이 운동은 보다 활기를 띠고 강화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는 세계를 렬강들의 뿐력과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 왔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64(1975)년 12월 16일 아르헨티나에서 발간된 잡지 《제3세계편람》 창간호에 발표하신 론설 《뿔력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와 주체75(1986)년 6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서 하신 결론 《뿔력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화들에서 이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원칙과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 대표단은 뿐력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외무상회의 등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을 폭로분쇄하고 이 운동의 통일단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5월 조선

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뿐력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를 밝혀주시였다.

뿔력불가담운동이 위력한 반전평화애호력량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자면 뿐력불가담나라들이 침략적인 군사뿔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일치한 행동으로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현시기 뿐력불가담운동앞에는 반제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서 자기의 역할을 보다 높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교묘하고도 악랄한 방법으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자주권을 란嫖하게 유린하면서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뿔력형성에 모를 박고있다.

아시아에서만 놓고보아도 미국은 일본과 남조선 등을 끌어들여 아시아판 《나토》인 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저들의 반동적인 전략실현에 반기를 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부당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면서 어떻게 하나 저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갖은 모략책동을 다하고 있다.

반제자주는 뿐력불가담운동이 내세우고있는 근본리념이다. 뿐력불가담운동은 반제자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아가야 하며 이 운동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기본은 미국과 서방세력들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과 무력사용을 단합된 힘으로 저지파탄시키는것이다.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뿐력불가담운동의 힘의 원천이며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답보이다. 뿐력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다.

공화국은 뿐력불가담운동 성원국으로서 앞으로도 뿐력불가담운동의 리념에 충실하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반제자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연옥

최악에 찬 역사를 거슬러

1945년 9월 8일,

이날은 조선민족의 가슴속에 원한의 상처를 남긴 비극의 날이다.

8. 15해방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려던 조선민족의 꿈은 《해방자》의 탈을 쓴 미제가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한 이날부터 무참히 짓밟혔으며 그때부터 민족분렬의 혼자,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이 들씌워진 혼자가 시작되었다.

돌이켜보면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것은 조선민족의 의사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반도를 타고았고 나아가서 세계지배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일찍부터 저들의 아시아침략을 실현하는데서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중요성을 간파해온 미국은 1945년에 38°선이남지역을 제멋대로 일본군의 그 무슨 《무장해제》를 위한 작전지역으로 설정하고 남조선을 강점하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군림한 미국은 《군정》을 선포하고 친미적인 리승만괴뢰 《정권》을 조작하였으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식민지지배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이 하수인들을 부추겨 조작해낸 각

종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들에 의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은 정당화되고 강점군에 무제한 특혜와 특권이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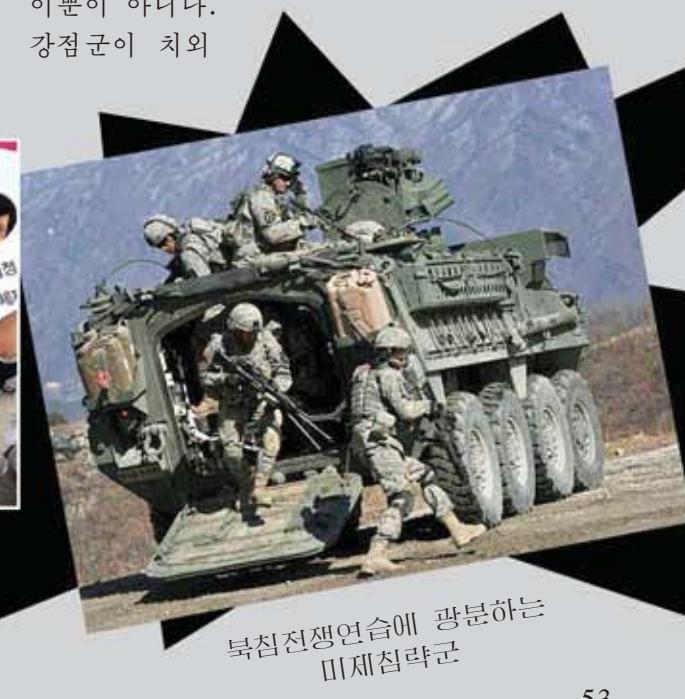
이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은 전조선반도를 지배할 목적밀에 친미적인 리승만괴뢰 《정권》을 사축하여 조선전쟁의 불을 질렀다. 3년간에 걸치는 조선전쟁은 온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었다.

그 미국때문에 오늘도 조선은 통일되지 못하고 해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질게 떠도는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전조선반도지배야망실현을 위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과 같은 도발적인 사건들을 련속 조작해내며 북침의 기회만 노리였다. 한편으로 수많은 무장장비들과 병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항시적으로 배치하여 놓고 남조선의 호전세력들과 함께 각종 명목의 핵전쟁연습책동에 매일과 같이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열점지역으로 만들어놓았다.

미국이 조선민족에게 끼치는 고통과 불행은 이뿐이 아니다.
강점군이 치외



미군철수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북침전쟁연습에 팽분하는
미제침략군

고약한 심보

조선의 분렬을 끼하고 통일에 대해 각방으로 훼방을 노는 나라들 속에 일본도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조선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다. 과거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애당초 분렬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조선을 분렬시킨데 대해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조선의 통일에 훼방을 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면서 못된 짓만을 일삼아왔다.

미제에 의해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공화국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었다. 북과 남은 1972년에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혁사적인 7·4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온 민족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당시 일본은 이를 두고 몹시 배아파하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기를 쓰고 반대해 나섰다. 당시 남조선 주재 일본대사가 『조선통일의 비극이 분렬의 비극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본은 분렬을 원한다.』라고 로골적으로 통일을 반대해 나섰다.

그런가 하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 3자회담제안, 북남군사당국자회담제안, 조선반도의 비핵, 평화지대 창설제안, 조선반도에서의 대규모적인 군축제안 등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발기와 제안들을 각방으로 반대하고 헐뜯었다.

일본은 국제무대에서도 조선의 통일을 집요하게 방해하였다. 제23차 유엔총회 때 일본대표는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가 절대로 심의될 수 없다.』고 말하였는가 하면 돈뭉치까지 뿌려가면서 공화국대표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비렬하게 놀아댔다.

유엔에서 유엔남조선 『통일부흥위원회』를 해체할 때 대한 문제를 상정되었을 때에도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였다. 유엔남조선 『통일부흥위원회』는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만들어낸 침략도구였다.

공화국은 이 기구가 조작된 첫날부터 그의 반동적인 본질을 폭로하고 즉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나섰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 편승하여 유엔남조선 『통일부흥위원회』를 해체하지 못하도록 책동하였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을 반대하고 영구분렬을 위해 감행한 일본의 죄악을 짚자면 끝이 없다.

오늘도 일본은 미국의 반통일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해 갖은 못된 짓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북남사이에 협력과 관계개선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고약한 심보를 드러내보이며 훼방을 놀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반통일책동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며 조선민족은 오랜 세월 민족분렬의 가슴아픈 비극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다면 일본이 조선의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면서 못되게 노는 고약한 심보는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이 통일된 강국으로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이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모든 조치들에 대해 사사건건 걸고들며 병적인 발작증을 일으키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 선군조선의 위력에 대한 불안과 꿈틀거리는 재침야망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는 초조감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한 일본문제전문가는 일본정부는 『통일되고 핵무장한 조선반도보다는 분렬된 조선반도』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조선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의 경우 핵무장한 조선반도가 일본에 사무친 원한을 계산하자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쓴 바 있다.

일본은 더는 조선의 평화통일에 훼방을 놀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계속 반통일책동에 매여 달린다면 그것은 조선인민 앞에 저지른 죄악에 더 큰 죄악을 덧쌓는 것으로 되며 나아가서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전룡진

고화

《동래부순절도》

그림은 임진조국전쟁 시기 동래부에서 벌어진 전투장면을 그린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성안의 애국적 군사들과 인민들은 부사 송상현의 지휘 밑에 수십 배나 되는 적을 상대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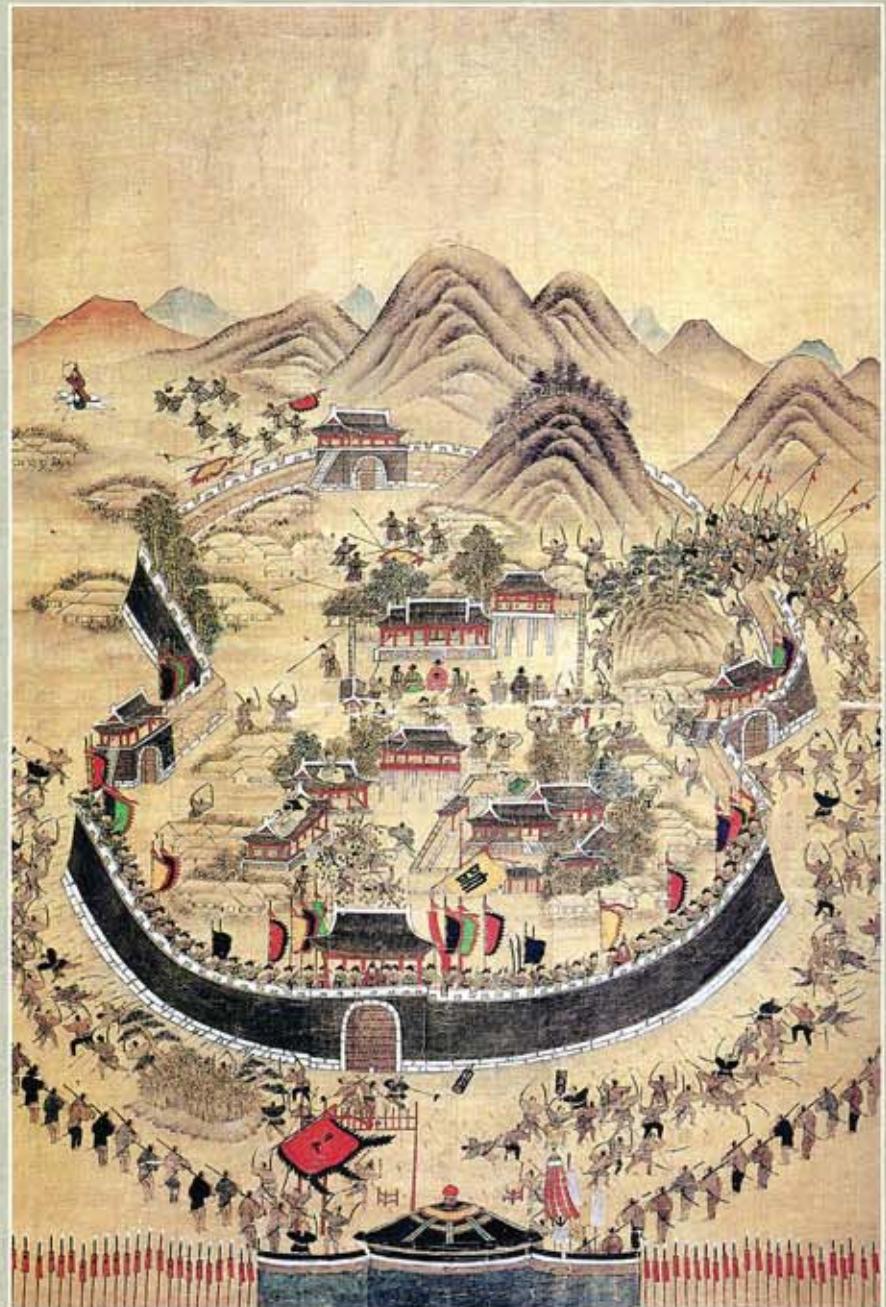
군사들은 성벽에 의지하여 적의 무리를 향하여 멀찍이 화살을 련 속 퍼부었으며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리자』는 나무簰를 든 왜적을 향하여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는 패말을 내리던지면서 항전하였다. 성안의 여러 곳에서는 무너진 성벽으로 들어온 왜적들과 결사의 혈투를 벌리였으며 지어 녀인들까지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겨 원쑤들의 대가리를 내리갔다.

그림 한 가운데에는 붉은 조복을 입은 송상현이 임금의 궐쾌(전쾌)가 있는 북쪽을 향하여 앉아 필사로 쌓을 것을 맹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멀리 뒤쪽에는 죽음이 두려워 성문을 열고 내빼는 무리들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성에서 벌어진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였는가 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구도와 필치에서 부족점들이 있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지만 여하간 선조들의 영웅적 투쟁사실과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인민에게 재난을 들

씌워온 일본침략자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기록자료이다.

이 그림도 1760년 동래부의 화원인 변박(자탁지)이 그려 그린 것이다.





미래과학자거리의 밤 본사기자 최원철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축포가 터져오른다.
천갈래만갈래로 피여
오르는 아름다운 축포는 미래과학자거리의
밤풍경을 더욱 황홀하게
장식해 준다.